



겨자씨.

거룩한빛
광성교회
안양시안양로10길10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3
WINTER
VOL.45

08 인터뷰 곽승현 위임목사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내며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33 2023 포커스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 I. 진짜 자존감 VS 가면 자존감 서종현
- II. 마음 근육 키우기로 스트레스 다루는 법 우문식





새해

|구상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
그것은 생활의 율조律調일 따름이다

흰 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은
이성理性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내 심호흡한 가슴엔 사랑이
뜨거운 새 피로 용솟음친다

꿈은 나의 충직과 일치하여
나의 줄기찬 노동은 고독을 쫓고
하늘을 우러러 소박한 믿음을 가져
기도는 나의 일과의 처음과 끝이다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서
꽃피울 새해여!



· 시인
· 작품집 『나는 혼자서 알아낸다』,
『한 촛불이라도 켜는 것이』 등
· 대한민국 예술원상, 금관문화훈장

겨자씨.

C.O.N.T.E.N.T.S

02 PROLOGUE

새해

04 VISION 23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 5대 비전

05 믿음소망사랑 I #2023 비전 키워드 2

#선교 #예배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I 오정순

정월 초하루

07 2023 WINTER Special Theme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08 테마 인터뷰 I 광승현 위임목사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 내며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13 2023 선한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지 밀알 I 요르단 김윤중 선교사

다윗의 피난처였던 ‘요르단’을 품고
선교에 힘쓰다

16 The 희망나눔 I 이영협 청년

특별하지만, 아름다운 이들과의 동행

18 포커스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1

19 포커스 I 서종현 선교사

진짜 자존감 VS 가면 자존감

21 포커스II I 우문식 소장

마음 근육 키우기로 스트레스 잘 다스리기

24 어와나 포토리뷰 I 광성어와나 소개

광성어와나,
어와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세 팀 수상

26 어와나 포토리뷰 I 광성어와나 교사 소감문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어와나

27 어와나 포토리뷰 I 광성어와나 학부모 소감문

아이들 말씀 외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

28 1월의 향기 I 박석순 목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30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I 능곡교회

지역 복음화에 앞장선 능곡교회

32 조금 특별한 예배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었네

34 마더와이즈 motherwise

병과 우울로 캄캄할 때 “미경아” 불러 준
마더와이즈

37 기쁜 소식 I 광성드림학교

제19회 YES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단체 부문 대상 수상

38 성경 속 인물 초대

호세아(Hosea)

39 2023 특별기획 I 리더에게 길을 묻다①

포스트코로나 시대

44 학생 기자 수첩 I 최아인

시작

46 학생 기자 수첩 I 이하음

삶이란

48 꿈담 I 초등부

말씀과 선교에 더욱 매진하며
한해를 마무리한 초등부

50 꿈담 I 중등부

예배의 히어로와 ABC제자훈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중등부

51 꿈담 I 고등부

충성된 사도 바울을 꿈꾸는 역동적인 고등부

52 청년광장

53 청년스타그램

54 HOT ISSUE I 광성청년FC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바쳐라

56 WE

‘소통하는 청년부’를 위해, 심 없이 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58 소통 & 공감

나의 2023년

59 문화산책

60 COVER STORY

희망의 새해

61 겨자씨툰 I 머스타툰

62 명작 Review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64 전시

함스부르크 왕가의 안목에 박수를 보내며

66 여행, 이야기를 담다 I 성북동 걷기 두 번째

두문즉시심산과 마저절위의 뜻을 새기며

68 독서감상페스티벌 I 어린이부

부유와 풍요로움보다 더 값진 것

70 독서감상페스티벌 I 일반부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

72 KS 단신

74 크로스로드

76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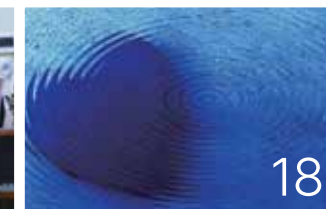
77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78 홍보미디어위원회 9개 팀을 소개합니다

79 운영역 참고 스튜디오



08



18



39



54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2023 비전 키워드 2

#선교

보내는 선교에서 가는 선교
교인들, 매년 선교지 찾아 '직접 선교 체험',
선교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한 해!
삶을 나누고 소통·공감·동행하는 선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예배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예배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한 해!



정월 초하루

글 오정순(수필가, 여성문학인회 이사)



새해라는 단어에는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다. 그러나 수시로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안도와 평안이 주어진다. 온갖 어려움 중에도 견디며 이겨 내야 하는 성질의 것들을 두고 타인이나 사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을 길러서는 안 될 일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 소식도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물고 온다. 요즘에는 공부를 마친 젊은이들이 절벽 앞에 선 듯 난감지사의 소식을 실어 나를 때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기도를 하는 정도로밖에 개입할 수가 없다.

돌이켜 보면 어떻게 하여 얻은 오늘날인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날이 오기까지 속박의 시절도 지나왔고 자유롭게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6·25의 참혹한 강도 건넌고 혁명의 다리도 통과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해 빛나는 졸업장을 탄 민족이 되어 세계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일이 술하게 지나갔다. 스포츠 영웅, 가난을 뚫고 피어나는 예능의 꽃들이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며 외화벌이를 해 왔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인데, 우리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태양이다. 모두에게 고루 비치는 그 빛으로 우리의 정신이 다시 깨어나고 일상이 싱싱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으로 좁혀가며 줄줄이 축복기도를 하고 나니 시간이 제법 흘렀다. 그렇다고 우리 형제자매와 가족을 빼놓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기에 정화한 기운을 무통장 입금하듯 대상에게 붙여넣는 행위이다.

- 중략 -

날아가는 참새에게, 울타리에 웅크리고 있는 들고양이에게, 앞을 다 떨구고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에게, 아니 우주 만물에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고 재앙 같은 것은 모른다고 그러라고 기도했다.

골목길에서는 가정마다 웃음꽃이 벚꽃처럼 피게 하여 웃음소리가 창을 넘어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2023 WINTER Special Theme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라

[눅 5:4-6]





곽승현 위임목사

선교·예배 양 날개를 활짝 펴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 내며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글 전영의 기자 / 사진 영광홍(거룩한빛광성교회 영상 실장)

✧ '선교'와 '예배'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성도.
그 꿈을 싣고 2023년에도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역동한다

MC Sniper라는 래퍼의 'Better than yesterday'라는 곡이 있다. 제목 그대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자는 내용의 곡인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현재도 버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들다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고인 물처럼 썩기 십상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2023년 거룩한빛광성교회 표어다. 물은 그냥 흐르지 않는다. 흘러 닿는 곳마다 푸른 생명을 키워 내고, 메마른 사막을 적시어 오아시스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온갖 장벽을 뚫고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에 이른다. 곽승현 위임목사는 2023년 거룩한빛광성교회도 그렇게 흘러 보자고 한다.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며, 2천 년 전 게네사렛 호수의 베드로처럼 '더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자고 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 북부 게네사렛 호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텅 빈 배로 돌아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다가왔다. 베드로의 배에 오른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 친 그 호수 위로 다시 배를 띄워 '깊은 곳'으로 노를 저었다. 깊은 곳에 이른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다.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베드로와 야고보·요한 형제의 배 두 척을 가득 채웠다. 만선으로 귀환한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묘사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첫 만남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2023년 거룩한빛광성교회 표어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 '더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 곽승현 위임목사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곳', 그것이 더 깊은 곳이라고 설명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

다면 주보를 접는 봉사든지 소그룹과 전도 활동 등 그동안 하지 않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탕 친 게네사렛 호수에 다시 배를 띄워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다. 사실 그는 호수의 모든 곳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더구나 밤샘 노동으로 몸은 몹시 지쳤고, 그물은 다 씻어 정리해 둔 상태였기에 호수 위로 다시 배를 띄우는 것이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인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장소이다. 또 날이 밝았으므로 대부분의 물고기는 얕은 물로 이동했다. 하지만 베테랑 어부 베드로는 군말 없이 배를 재정비해서 호수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때의 일이다.

첫 만남에서 어떻게 이런 순종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고깃배를 몬 것은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호숫가에 모인 군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

알파 성령수양회에서 찬양하는 박승현 위임목사와 이미경 사모. '알파'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성령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영적 활력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새신자 프로그램이다



파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승현 위임목사는 올 한해 베드로처럼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한 걸음 더 깊게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덧붙였다.

2023년 大 키워드 두 가지

2023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사역의 큰 두 축은 '선교'와 '예배'이다. “지난해 7월, 우리 교회 파송·협력 선교사의 선교지 일곱 곳을 탐방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망을 보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과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이 뜨거운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동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교인들에게 '가는 선교'의 길이 열린다. 현재 거룩한빛광성교회의 12개 교구에는 교회의 파송·협력 선교사들이 각각 조인(join)되어 있고, 교구에서는 기도와 물질로 조인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다.

이제 후원을 넘어 직접 간다는 계획이다. 각 교구에서는 매년 한두 개의 탐방팀을 만들어 5월에서 8월 사이 조인 선교사의 선교지로 보낼 예정이다. 그곳에 머물면서 교인들은 단기간이나마 현지인들

의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누는 직접 선교를 실현해 보는 것이다. 교인들이 선교의 보람과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예배'를 또 하나의 大 키워드로 꼽은 것은 크리스천에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뿌리 없는 나무에 꽃을 기대할 수 없듯 예배가 살아 있지 않은 신앙은 뿌리를 이탈한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뿌리가 튼실해야 가지에 푸른 생명이 움튼다. 그만큼 뿌리를 다지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은연중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예배다. 조금의 느슨함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신앙의 균열이 가곤 한다.

“나의 예배에는 간절함이 작동하고 있는가?”

박승현 위임목사는 항상 자신의 예배를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여러 물건이 있어도 유독 손이 자주 가는 물건은 정해져 있다. 옷장의 옷도 그렇고, 그릇도 사용하는 것만 계속 찾게 된다. 명품 브랜드의 옷이어도 불편하면 결국 옷장에 처박아 썩히다 버리게 되고, 전 시용으로 진열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에는 먼지만 쌓인다. 물건은 쓰일수록 그 가치를 발하는 듯하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옷 색깔만큼이나 뜨거웠던 축제 '알파 성령수양회'. 박승현 위임목사는 남성 교인은 힘차게 안아 주고, 여성 교인은 두 손을 꼭 잡아 주며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 두 가지를 묻자 박승현 위임목사는 '겸손'과 '순종'을 꼽았다.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즐겨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겸손과 순종이 있었다며 자신을 비워 깨끗이 하는 것이 겸손과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전한다.

‘오고 싶은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사회와 구성원이 흩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모여야 한다. 잘 흩어지기 위해서 잘 모여야 한다. 그렇다면 흩어짐이 점점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돌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 현장에 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무엇이 뭘까? 광

승현 위임목사는 그 무엇을 세 가지로 꼽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어야 합니다. 여럿 있지만 세 가지를 말하자면 '영적인 만족감', '사랑',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감을 첫 번째로 강조하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고, 교회가 영적인 만족감을 줄 때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이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만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즉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찾는다.

요즘 한국교회 곳곳에서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박승현 위임목사는 “사랑이 충만한 선생님이 있는 교회학교에는 아이들이 몰려온다”며 교회는 '사랑'으로 승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세 번째인 의미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많은 교인이 함께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자신의 영위보다 그런 것들을 최우선에 두기도 한다. 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펼칠 때 그것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더 풍성하게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㉔ 광승현 위임목사의 선교지 탐방 중에 치른 필리핀 김정조 선교사의 결혼식. 광승현 위임목사는 주례로, 이미경 사모와 세계선교위원회는 축가로 그동안 선교에 힘쓰느라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했던 김정조 선교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기독교인의 시간 관리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식의 도리도 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운동과 독서 등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할 것이 두세 배로 늘어난다. 예배 드리기, 성경 읽기, 봉사하기 등등.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광승현 위임목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훈련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우선순위 정하기'라고 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좋은 약이라고 그 약을 다 먹으면 오히려 몸을 망친다. 해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한 정된 시간 속에서 허덕이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야만 할 것 같은 수많은 것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광승현 위임목사는 크리스천이 해야 할 것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면 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고.

㉔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현지 어린이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광승현 위임목사. 바탕가스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파송한 김상태 선교사의 선교지다



조각가는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 내면서 작품을 완성해 간다. 미켈란젤로 역시 다비드 상을 조각할 때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을 쪼아 냈다고 한다. 신앙도 '건어냄'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한 조각씩 깨트려 건어냄으로써 자신을 빚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의 자세일 것이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2 선한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2022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추수감사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노인, 노숙인, 청년, 긴급 선교지, 태풍 피해, 작은교회 등

• 2022 추수감사절 헌금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지정	1.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4,443,620원
	2. 장애인		2,921,000원
	3. 다문화		1,100,000원
	4. 노인		1,120,000원
	5. 노숙인	청년창업 재정	1,050,000원
	6. 청년		1,650,008원
	7. 긴급 선교지	4개국 6명 선교사 지원	14,000,000원
	8. 태풍 피해	한국교회봉사단 통해 지원	1,065,980원
	9. 작은교회	미자립 / 농어촌교회	5,000,000원
크로스로드 : 비빌언덕 사역			10,000,000원
개인 지정 대상자			34,090,000원
교구/부서 추천 교인 가정			50,000,000원
합계			126,440,600원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개신교의 기념일로, 부활절 및 크리스마스와 함께 개신교 3대 명절 중 하나이다.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해 가을, 처음으로 거둔 수확으로 감사제를 지낸 일에서 유래한다.

다윗의 피난처였던 ‘요르단’을 품고 선교에 힘쓰다

제한적인 종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글&사진 김윤중 선교사

요르단 왕국은 이슬람 종교를 배경으로 인구의 95%가 무슬림인 나라이다. 성경의 땅이고 교회 역사가 있던 지역으로 기독교가 법적 종교로 인정받고 있지만 자국민의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지역 특성 및 보안상의 문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하는 아내와

이곳 요르단에 도착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년 8개월이 지났다. 베트남,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르완다 등에 몇 달씩 머물며 침뜸 치료 봉사를 하기도 하였지만, 한곳에서 6년 넘게는 이곳이 처음이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더 늙기 전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선택한 걸음이다. 이곳에서 침 치료 횟수를 보니 오천 번이 넘는다. 쓰고 난 침 분량도 20kg이 넘는다.

1~2년에 한두 번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 선교사들이 생겼다. 이곳 정보 실력이 이스라엘 뺨친다는 소식을 접하면 때때로 겁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도는 가급적 삼가며 지낸다.

일화1 그래픽 디자이너 아잔과 웨이마 신혼부부

직접 전도는 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먼저 응수 타진하면 그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웨이마는 임신이 안 되

어 내게 치료를 받곤 하였다. 그녀는 나에게 알라를 믿으라 권한다. 예수님보다 더 좋단다. 무슬림은 모스크에서 하루 다섯 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처에 같이 가서 동참하자고까지 말하며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기도처에 갈 테니 당신들도 내가 믿는 교회에 같이 가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였다. 결국 불발되었지만 여전히 그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환자 치료 및 예약자 달력(주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의 집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그녀의 어머니와 언니, 오빠(마약 상습자)도 침 치료를 받았다.

일화2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환자

76세의 자리화. 그녀의 친정 여동생 마리암(74세)이 남편(76세)과 같이 내게 치료 받았고, 자리화를 소개했다. 그녀는 중풍을 맞고 허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유동식을 수저로 목구멍 근처에 놓아야만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자신은 없었지만 치료에 임했다.

한 번은 허를 수건으로 잡아 빼고 그곳에 침을 놓아 달라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 허에도 침을 놓는 혈자리가 있지만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놓을 생각을 안 한 내가 부끄러웠다. 한 번의 시술로 전혀 움직이지 않던 허가 꿈틀했고, 나를 포함해 보조하던 동생도 놀란 얼굴로 마주 보았다.

내가 감동받은 것은 그 이후였다. 그녀는 치료실의 조그만 유리창에 사용할 커튼과 치료대 커버를 손수 만들어 왔다. 치료 효과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고작 2, 3회 치료받았을 뿐인데 말이다. 그녀는 갓난아기 때 할머니가 실수로 창틀에서 떨어트리는 바람에 말을 못하는 병어리로 자랐다. 다행히 결혼도 하고, 재봉질을 하여 식구들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 가난한 형편에 헌 천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 선물은 나에게 크나큰 감동이었다. 재봉을 보니 40년도 넘은 낡을 대로 낡은 구식 싱거 미싱이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최신식 싱거 재봉을 선물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한 것. 픽업하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셔오지 않았고, 걷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제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한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뵙고 싶은 마음에 엇그제 찾아뵈었다. 감격의 눈물을 보이시는데 나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간접 선교의 방편 요르단한글학교장

자녀 교육에 소홀한 한국인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곳은 교육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것이 간접 선교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요르단한글학교장을 맡고 있다. 부족한 재정에 보수를 지급하는 선생님 초빙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비록 제한적인 종교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



2



3

- 1 아잔의 초대를 받은 어느 날, 내 맞은편이 아잔(그래픽 디자이너). 아잔은 매년 나에게 예약 환자를 적을 수 있는 1년치 주간력을 만들어 주고 있다
- 2 자리화를 문병 온 친척들. 자리화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다
- 3 주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독도 그리기,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요르단한글학교 학생들



☞ 끓는 물에 발을 데인 한인 식당 종업원(방글라데시인)

사랑청년부를 섬기는 이영협 청년 특별하지만, 아름다운 이들과의 동행

글 전영숙 기자


 사랑부 아이들과 함께한 야외 활동

신앙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지만,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 나와 다름을 이상히 여기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일쑤다. 그런데 여기 그 다름을 인정하며 ‘특별하지만 아름다운’ 이들과 함께함을 감사히 여기는 청년이 있다. 사랑청년1부를 섬기고 있는 이영협 청년.


 특별하지만 아름다운, 사랑부 아이와 함께


♡ 사랑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백일장 작품들을 전시하기도



♡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감사함으로 섬기는 이영협 청년

사랑부 대상으로 진행한 백일장 전시회를 마감하며 작품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준 이영협 청년은 애틋한 모습이었다. 사랑부를 섬긴 지 4년 됐다는 그는 지금 장애인사역위원회 총무에다 사랑청년1부 부장까지 맡고 있다.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싶는데 그는 오히려 소중한 부서를 섬기게 돼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장애에 대한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섬길 부서를 찾던 제 손을 누군가 잡아끌어 온 곳이 사랑청소년부였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반갑다 인사하는 제 손을 꺾어 버려 당황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저나 그 친구들이나 똑같다고 느껴요. 누군가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저와 다를 바 없는걸요.”

처음 찬양 인도를 했을 때, 평소 말도 잘 못하던 아이가 가만히 떨리는 영협 청년의 손을 잡더니 ‘괜찮아’ 말해 주던 순간을 시작해 사랑부 친구들의 순수함을 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사라졌단다. 자신을 보면 싫다면서 밀어내던 여학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을 열고 본인 이 만든 빵이나 초콜릿을 챙겨 주기도 하고 찬양 인도를 할 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힘든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예배 때마다 소리 지르고 뒤엎고 난리를 치는 중증 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있었어요.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교사 모두가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했더니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폐가 있기도 한데 손으로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요.”

매달 셋째 주 온사랑예배(비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를 통해 사랑부 친구들이 세상과 만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알게 된다고 말하는 영협 청년은 성도들에게 ‘배려’를 부탁했다. 늘 비장애인들에게 배려해 달라고 부탁하다 보니 ‘불편하겠단다’ 싶어 미안한 마음을 갖

고 있지만 사랑부 친구들을 미워하지 말았으면 싶단다. 그렇다고 약자로 보거나 너무 불쌍하게 보지는 말고 비장애인을 보듯 똑같은 시선으로 봐 줬으면 한다. 특별하지만 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부라고 말하는 영협 청년은 보다 많은 이가 사랑부를 섬겼으면 하는 바람을 숨기지 않는다. 사랑부의 특성상 1대1로 돌봐야 하는데 현재 40명 내외가 출석하고 있는 사랑청년1부만 보더라도 교사는 3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랑부가 별도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라 사랑부를 위해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영협 청년 같은 청년들이 사랑부를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다. 한데 어우러져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다.



♡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떨림 가운데 감동이 있다고 한다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 ‘마음’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1

자존감

진짜 자존감 VS 가면 자존감

서종현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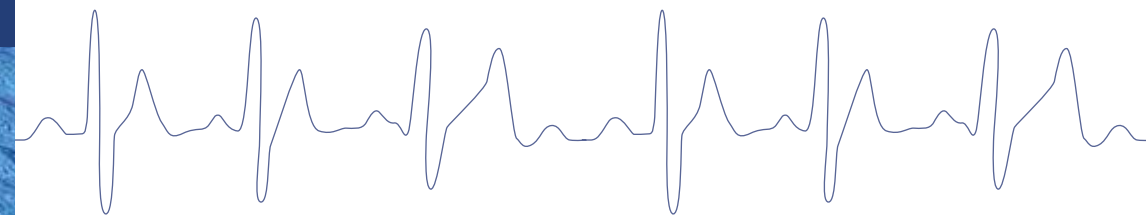
마음 근육 키우기로 스트레스 잘 다스리기

우문식

진짜 자존감 VS 가면 자존감

글 서종현 선교사(한국문화심리연구소 소장, EMT선교회 대표 목사)

“교회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면 자존감의 장이 아닌
창조물로서의 진정한 자신을 찾고
바른 자존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바야흐로 호호 불어 가며 붕어빵을 먹는 계절이다. 센스 있는 붕어빵 장수들은 뜨끈한 어묵도 같이 팔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붕어빵이란 것도 요즘은 안에 들어가는 소의 종류가 팔부터 슈크림까지 참 다양하다.

우리 동네 붕어빵 주인 아주머니는 팔, 슈크림, 피자 이렇게 세 가지 소가 들어가는 붕어빵 3종에 어묵까지 더해 총 4종을 판다. 옆 동네 붕어빵 아줌마가 달랑 팔소만 들어간 붕어빵만 파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인지 붕어빵을 사느라 줄을 서 있노라면 “어머, 이 집은 종류도 참 많네. 옆 동네 아줌마는 팔밖에 안 판다니까!” 라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손님들의 칭찬에 붕어빵 판을 철커덕 철커덕 신나게 뒤집는 우리 동네 붕어빵 아주머니의 자존감은 입꼬리를 따라서 상승장 주식 그래프처럼 쪽 올라간다.

자존감, 한마디로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가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짜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존감이면 자존감이지 가짜와 진짜는 또 무어란 말인가.

누군가의 평가, 즉 내 자존감의 기준이 남에게 있는 경우는 가짜 자존감이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가면 자존감이라고 한다. 누군가 칭찬

을 해 주었을 때 ‘오! 맞아 난 잘했어. 자 다음 목표를 설계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오! 칭찬을 들었어. 어떻게 하면 또 칭찬을 들을 수 있지?’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느껴지는가? 전자의 경우는 자기 행위의 기준과 핵심이 자신에게 있고, 타인의 칭찬은 자기 행위의 영양제 정도나 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자기 행위 기준과 핵심 자체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

붕어빵 얘기로 다시 가 보자. 우리 동네 붕어빵 아주머니보다 더 많은 종류, 그러니까 군밤을 같이 파는 아줌마가 등장했다고 해 보자. 이때 우리 동네 아줌마가 ‘음, 손님이 저쪽으로 몰리는군. 하지만 난 이미 한번 성공해 본 몸이라는 말씀! 자, 그럼 이제 진짜 경쟁을 시작해 볼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좋았던 시절은 잠깐이었어. 손님들도 다 떠날 거야. 이제 끝이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 아주머니가 잠시 지녔던 자존감은 가면 자존감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적 충동에 쉽게 좌우되지 아니한다. 때문에 진정한 자존감은 단시간에 확립할 수 없고, 한번 확립된 자존감을 누군가 함락시키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 자신을 지키는 강한 성벽인 것이다. 그러나 단지 타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가면

자존감은 성벽 모양의 종이 구조물에 불과하다. 태우면 이내 타 버리고, 구기면 구겨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자. 자존감과는 결이 다른 가면 자존감을 무엇이라고 해야 옳은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타존감’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존재감이니 말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자존감의 참뜻은 그 단어 그대로 자신에 의한 기대에 부응하여 얻는 존재감이다.

자, 이제 달달한 붕어빵 이야기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존감 상태는 어떠한가?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관계주의가 깔려 있다고 말한다. 관계주의를 쉽게 말하자면 ‘나와 관계가 좋은 네가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다’라고 반응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반대로 ‘나와 관계가 좋은 네가 싫어하면 나도 그것이 그냥 싫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사회 전반에 관계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계 안에 잘 녹아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유독 한국인들은 관계주의에 민감한 나머지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모가 나거나 툭 하고 빠져나오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계 안에서 남과 다른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창의력의 ‘뛰어남’이나 ‘빠어남’이 아니라 단지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한국의 관계주의 기저에 세워진 한국교회 내부에는 자신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스스로를 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가면 자존감을 만들어 내는 성도가 많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뛰어남 혹은 빠어남은 특정 몇몇에 대한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특성이다. 우리는 모두가 고유의 특징과 저마다의 기질을 가지고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았다. 공산품이 아니라 창조물인 우리 모두는 애초부터 보편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될 수 없다. 세상에서는 튀어나왔다고 돌에 맞고 깎이고, 상처 나서 아파했던 이들도 교회에 오면 창조주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기질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 이런 노랫말이 있지 않은가.

걸작품 파이다온선교회

흠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살아 숨 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성도들에게 교회란,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면 자존감의 장이 아니라 창조물로서의 진정한 자신을 찾고 바른 자존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교회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이 일환으로 교역자들이 아무리 1인 1사역을 외쳐도 성도들 귀에는 당나라 얘기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혹시 ‘나까지 나설 필요 있겠어. 괜히 튀어나와 보이게’ 이런 생각부터 들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관계주의의 부정적 기저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주님의 일에 적게라도 자신을 나타내면서 살자.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레크리에이션이 필수 코스처럼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남의 일로 여기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이때다 싶어 하며 묵었던 머리를 풀어 젖히고 흔들여 보자.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세상 사람들만 회식 때 넥타이 머리에 쓰라는 법 있는가? 창조물로서 지어 주신 모습 그대로 세상아 날 좀 보라고 화끈하게 흔들면서 살자. 사람의 관계가 정해 주는 내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지어 주신 나로 살자. 지면을 통해 선포하건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은 창조주를 향한 찬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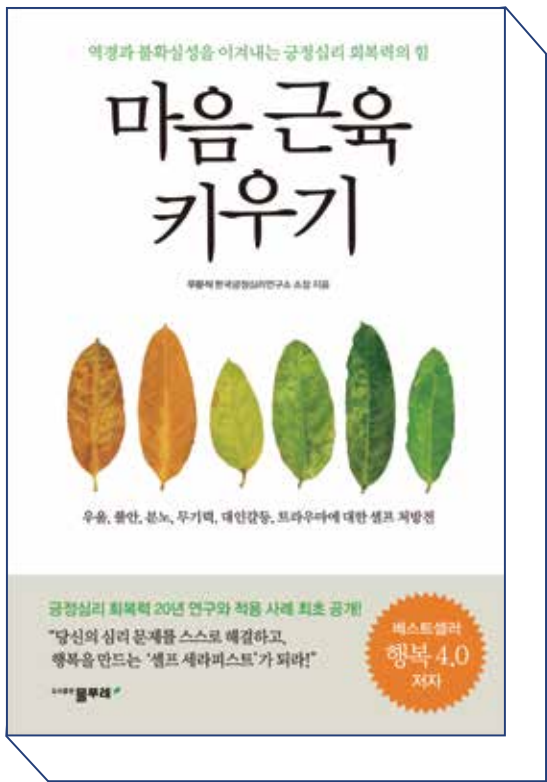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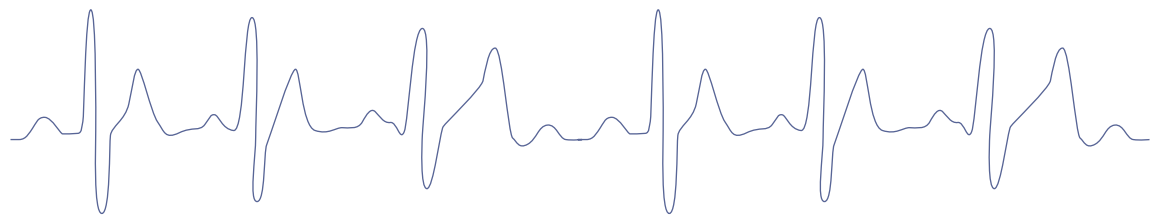


⌘ 자기 행위의 기준과 핵심이 ‘자신’에게 있는지, ‘타인’에게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 근육 키우기로 스트레스 잘 다스리기

스트레스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므로
맞서기보다는 수용하기

글 우문식 소장(한국공정심리연구소, 『마음 근육 키우기』 저자)



⌘ 심리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을 만드는 ‘셀프 세라피스트’가 될 수 있다

인생을 거친 파도에 비유하기도 한다. 항해하면서 만나는 거친 파도에 무작정 맞서기보다 파도타기 기술을 배워야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그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 80%가 2년 이내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75~90%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인과 가정, 조직, 사회에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사회가 그만큼 긍정적이기보다 부정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나 뉴스보다 화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사람은 하루에 2만 5천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7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 부정 생각은 부정 감정을 낳고, 부정 감정이 부정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개인과 사회에 스트레스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힘든 상황에서 겪게 되는 심신의 긴장 상태

스트레스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역경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일시적으론 소화 불량과 피로감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불안, 우울, 분노 감정의 결합체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며,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도 과도한 정보, 새로운 기술, 급속한 변화, 과중한 업무, 대인적 갈등, 성과 부진, 사업 실패, 경제적 위기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기도 하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는 회복력

동일한 스트레스에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욱 강해진다. 누구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 과식이나 음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빠져드는 반면 누구는 스트레스를 운동이나 심리적 강화 등 건강한 접근법으로 해소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는 회복력(회복 탄력성, Resilience)의 차이이다. 회복력이란 스트레스를 이겨 내는 힘이고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는 도구이다.

필자는 2010년 전후까지 사업 부도와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수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스트레스로 인

한 감염성 질환으로 일주일애 두세 번 감기 몸살을 달고 다녀야만 했다. 다행히도 당시 긍정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었기에 ‘회복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급한 성격 탓에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잦은 대인 갈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래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들을 적용해 마음의 근육을 키워 스트레스와 함께 분노까지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토양을 재구축할 수 있었다. 지금은 감기 몸살을 앓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화내지 않는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긍정심리학은 성격을 학습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은 사전 예방하는 기술과 사후 해결하는 기술이 있다. 사전 예방 기술은 평소에 긍정심리 팔마스(PERMAS: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강점)를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발생 후 해결하는 기술에는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기술, 긍정심리 도구로 긍정 정서를 키우는 기술, 점진적 근육 이완 기술이 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한 즉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판단에 의해 유발된다. 그 상황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수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사

후 해결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는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이다. 수용은 어떠한 부정 사고라도 휘둘리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며, 이것은 이런 생각, 저것은 저런 생각임을 자각하며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 생각에 의해 뒤따르는 감정을 맞서 싸우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공간을 넓혀서 자유롭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통한 긍정적인 정서 키우기’이다. 긍정심리학의 긍정 정서를 키우는 도구 중 ‘감사일기(잘됐던 일 세 가지)’가 있다. 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왜 감사일기를 쓰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감사일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긍정심리 도구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제라 불릴 정도로 효과적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화가 나거나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때로는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 중 잘 안 됐던 일보다 잘됐던 일, 즉 감사한 일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혹시 잊고 있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진 않았는지, 며칠 동안 밤새워 가며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진 않았는지, 담임목사님 설교로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 등 두세 가지 정도는 좋은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일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다. 이런 감사할 일을 매일 세 가지씩 적고 왜 잘됐는지 이유를 쓰면 그 자체로 훌륭한 감사일기가 된다. 이 감사일기의 핵심은 ‘감사한 이유’를 쓰는 것이다. 감사한 일과 함께 감사한 이유까지 쓰면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ex

감사한 일 : 주일 예배 담임목사님 말씀

감사한 이유 : 최근 한 성도와 갈등 문제가 말씀의 은혜로 해결됨

처음엔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2주 정도만 쓰면 익숙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 해결 기술 세 번째는 ‘근육 이완 기술로 긴장 완화하기’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해친다.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면 몸이 딱딱하게 굳고, 등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목이 뻣뻣해지기도 한다. 이때 점진적 근육 이완 기술을 통해 신체 각 부위의 근육을 체계적으로 조였다 풀어 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이 완화된다. 다음의 방법대로 실행하면서 스트레스로 근육이 긴장할 때와 이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비교하면 더 도움이 된다.

①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두 눈을 감고, 2분 동안 심호흡한다.

② 두 손과 팔 아래쪽부터 시작한다. 주먹을 쥐 채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과 팔 아래쪽 근육을 힘껏 조인다. 다른 신체 부위나 팔뚝 전체를 조이지 말고, 오직 두 손과 팔 아래쪽 근육만 긴장시킨다. 그렇게 15초 동안 손과 팔 아래쪽 근육을 긴장시킨다.

③ 숨을 내쉬면서 손과 팔 아래쪽 근육을 이완한다. 근육의 긴장을 재빨리 풀고, 그 이완된 느낌에 집중한다. 이때 계속 심호흡을 하는데, 한두 번 심호흡한 후에는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느낌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 완전히 이완된 상태를 30초 동안 유지한다.

④ 이제 팔, 다리, 목 등 다른 부위 근육도 같은 방법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즉 15초 동안 바짝 조였다가 30초 동안 완전히 푸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근육을 조이고, 한두 번 심호흡한 후 숨을 내쉬면서 근육을 풀어 준다. 근육이 조이는 느낌에 집중하고, 목표로 삼은 근육만 긴장시켜야 한다. 근육을 이완할 때도 그 느낌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이완시킨다.

⑤ 한 부위의 근육을 두 번에 걸쳐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 후 다음 근육으로 넘어간다. 익숙해지면 10초 동안 조이고 20초 동안 풀어 준다.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야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스트레스에 슬기롭게 대항할 수 있다





1 2022년 어와나 올림픽 스팅스 경기 사진
2 2022년 어와나 올림픽 티엔티 여성팀 경기 사진
3 2022년 광성어와나 운영진

인정받은 일꾼으로 성장하자

광성어와나, 어와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세 팀 수상

‘어와나’는 ‘인정받은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약자로 다음 세대 글로벌 성경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110여 개국, 2만여 개 교회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광성어와나 프로그램

광성어와나 프로그램은 크게 게임(40분), 핸드북(40분), 예배와 교재(40분)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주일 1시 30분, 광성드림학교 4층 강당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40여 명의 교사가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북 시간에는 클럽원이 각자 연령에 맞는 핸드북을 가지고 가정에서 암송해 온 말씀을 선생님에게 확인받습니다. 게임 시간은 클럽원들이 게임을 통하여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협동하는 법,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대그룹 예배와 교재 시간에는 예배와 함께 어와나의 큰 매력 포인트인 유니폼에 부착되는 시상품을 시상하여 클럽원들이 더욱 열심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경기 지역 어와나 올림픽 출전, 우승 쾌거

지난 2021년 10월, 3년 만에 열린 경기 지역 올림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총 다섯 개 팀이 나가 세 팀이 우승(금메달)을 이루면서 그간 출전했던 그 어떠한 대회보다 좋은 성적을 이뤄 내서 위임목사님과 많은 성도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 광성어와나 2022년 티엔티 시상식



함께 해요 어와나

신규 회원 모집

매년 상반기(2~3월), 하반기(7~8월)

반

퍼글단(4세), 커비단(5~6세), 스팅스(7세~초2), 티엔티(초3~6학년), 트렉(중등생), 저니(고등학생)



1 2022년 광성어와나 올림픽 단체 사진
2 2022년 티엔티 게임 시간
3 2022년 광성어와나 교사
4 2019년 어와나 그랑프리 디자인 심사 중
5 나무토막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하는 어와나 그랑프리. 심사 대기 중인 자동차들



어와나 그랑프리 설명 중

광성어와나 교사 소감문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어와나

글 박은혜 집사(광성어와나 교사)

저는 2015년도에 처음 ‘어와나’를 알게 된 후 남편 김두연 집사와 함께 어와나를 섬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어와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큰아이(김승찬)는 스팅스(Sparks) 초등 1 과정을 하고 있었고, 작은아이(김승환)는 커비(Cubbies) 6세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와나가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던 탓에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인솔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와나에서 BT교육(베이직 트레이닝, 어와나 교사 기초 교육으로 어와나 교사 필수 코스)을 통하여 어와나 개요, 교사 리더십과 구조, 훈련 방법, 복음의 수레바퀴 등을 배운 후에는 조금의 용기가 났습니다.

첫해에는 스팅스(7세부터 초등 2학년) 클럽원들의 암송을 확인해 주고 게임을 하는 스팅스 반 교사로, 그다음 해에는 스팅스 클럽원들과 교사 모두를 인솔하여 어와나 게임을 진행하는 게임 디렉터로, 지난해는 티앤티 감독관으로 어와나 올림픽과 어와나 그랑프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와나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뛰노는 이 시간이 진짜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그렇게 지나다 보니 벌써 햇수로 8년 차 어와나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또한 말씀 안에서 서서히 젖어 들어가며 성장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함께 어와나에 참여했던 우리 큰아들은 벌써 중학교 2학년 트랙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티앤티의 가장 큰 형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또 대화 중에 아이들 입에서 어와나 시간에 배운 말씀 구절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어찌나 예쁘지요. 거룩한빛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도 어와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19년 어와나 그랑프리에서 디자인상 1등을 받은 큰아들과 함께



2019년 어와나 그랑프리에서 디자인상 2등을 받은 작은 아들

광성어와나 학부모 소감문

아이들 말씀 외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

글 고현정 집사(광성어와나 학부모)



어와나로 더 행복해진 우리 가정

처음 ‘어와나’를 알게 된 건 두 아이를 육아 중인 선배 가정의 SNS 스토리를 통해서였습니다. 큰 경기장에 모인 아이들이 메달을 얻기 위해 진지하게 경합을 벌이는 모습, 기억이 날 듯 말 듯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기를 쓰고 암송하는 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귀엽고 대견하여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파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몇몇 이웃 분들을 통해 남편과 아이들 먼저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와나가 있다는 소식에 인상 깊었던 그때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말씀 양육에 대한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섬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열한 살 첫째와 일곱 살 둘째의 어와나 참여뿐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심을 가진 남편이 어와나 교사로 세워지는 생각지도 못한 수를 하나 더 준비해 두셨더군요. 할렐루야!

‘게임이야 놀고 뛰니까 좋아하겠지만, 말씀을 매주 외우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끈기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주 어와나를 다녀온 아이들은 늘 상기된 목소리로 그날의 게임 성과와 암송 말씀을 앞 다퉈 자랑할 만큼 어와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와나를 통해 아이들의 말씀 외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무질서한 아이들이 어와나에서 배운 규칙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끊임없이 흔들고 기준 없는 가치관을 심어 주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아이를 굳건하게 양육할 수 있는 해법은 ‘어와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품고 자라 갈 아이들’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해 매주 기도하며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2년 9월 수원에서 개최된 어와나 올림픽에서 메달따고 기뻐하는 딸



22년 9월 수원에서 개최된 어와나 올림픽에서 메달따고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들

글 박석순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만남이 없던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여러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진 중년의 때에 질병을 만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것은 도리어 제게 감사로 여겨집니다.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 신학교 전경과 여름 캠프를 마치고 난 후 팀원들과 함께. 그저 좋은 경험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갔던 유학. 그러나 돌아올 때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교구와 전도위원회를 담당하는 박석순 목사입니다. 2019년 11월 말,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으니 벌써 4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삶이다!’ 언젠가 책에서 본 문구인데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만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순간 모든 시간이 삶을 이루니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삶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나를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 조금 더 기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저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기억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에 대해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시간

20대 청년의 때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비전과 미래, 하나님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민하다 휴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 찾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는 분을 통해 영국 에딘버러에 위치한 신학교(Bible College)를 소개받았고, 몇 개월의 지원 절차를 밟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결정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고의 결정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재정적인 걱정이 있었지만 해당 신학교는 선교 재단에서 100년 넘도록 운영된 곳으로 장학금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생활이니 만큼 어학연수에 대한 욕심도 있었는데, 한국 학생도 거의 없고 기숙사 생활을 하여 다른 어학연수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기에 그 어느 곳보다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정체성을 고민하기에 최적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에딘버러에서의 생활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분위기의 학교 수업과 기숙사 생활, 그리고 철저한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만남이 없었던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으며, 목사로 살아가는 지금도 그 시간은 잊지 못할, 아니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본 시간

40대가 된 목사의 때

먼저 저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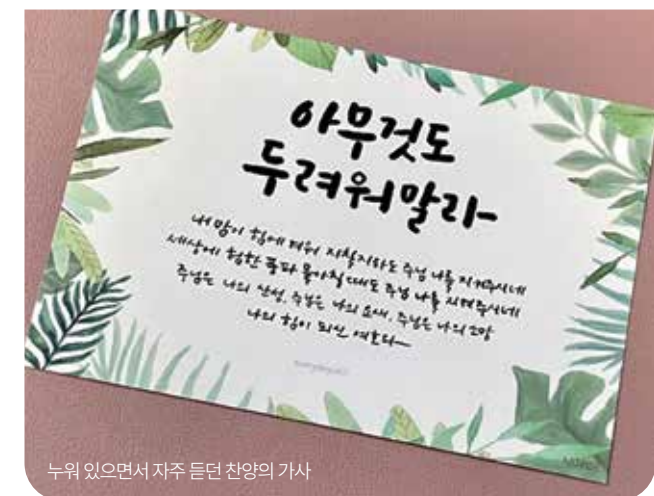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던 작년 8월 어느 토요일, 갑자기 머리에 찌릿한 느낌이 들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증상이었지만 ‘잠깐 그건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로 향하는 길부터 이상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일어서거나 앉아 있으면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아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충격도 없었기에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대학병원 진료를 통해 ‘자발성두개내저압’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산의 한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 후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두 번의 시술을 받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누워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발병한 지 한 달 가까이 대부분의 시간을 누

워서 지냈고, 통증이 심할 때는 식사도 옆으로 누워 최대한 빨리 해야 했습니다.

완치는 될 수 있을까? 교회로 돌아가 이전처럼 다시 사역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술 이후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시 시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방법은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병상에서 들을 때면 ‘나의 소망이요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진 스스로의 모습을 질병이라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본 이 시간이 이젠 도리어 감사로 여겨집니다.



2차 시술 후 통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책하는 길.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임을 깨달았다



누워 있으면서 자주 들던 찬양의 가사

지역 복음화에 앞장선 능곡교회

글&사진 김용기 기자

능곡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성전으로
1995년 입당예배를 드렸다

능곡교회의 지역교회 분립 개척은 반석교회(1977), 한빛교회(1989)로 이어지며 지역 복음화의 산실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몽골과 필리핀 등 해외 선교 활동을 통해 세계 복음화로 그 역할을 넓혀가며 선교교회로서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교인들의 주도로 세워진 고양의 초대교회

행주와 능곡 지역은 고양 지역 복음화의 초대 터전이다. 우리나라 최초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설립한 언더우드(1859~1916) 목사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출발지가 된 덕분이다. 언더우드 목사가 한강을 이용한 해상 교통이 번창했던 행주 나루를 이용해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해 멀게는 압록강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고양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행주교회(1890)에는 언더우드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하

곤 했기 때문에 지역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행주와 능곡은 5리 길로 멀었지만, 태풍과 폭설 때에도 교인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곤 했다.

행주교회가 점점 성장하며 예배에 불편을 느낀 능곡 지역 기독교인들 사이에 교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893년 드디어 능곡교회를 세우게 된다. 능곡교회 120주년 기념 책자에 따르면 당시에 4명의 선비(박운삼, 이기석, 신용환, 하순철)가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목사의 자택을 방문해 교회 설립과 예배 인도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기독교와 유학의 만남과 변화

능곡교회 설립을 준비하며 임시 기도처를 마련한 초대 기독교인들은 당시 행주서원에서 동문수학한 선비였다. 이들은 오랫동안 유학을 공부하였지만, 사상적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들이었다.

당시 행주서원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왜적을 물리친 권율 장군을 기리는 곳으로 유학 사상의 지역적 중심지이기도 했다. 권율의 기상과 유학을 배운 선비들이 유학 사상을 멀리하고 기독교를 수용해 교회 설립을 주창하며 지역 사회에 기독교가 빠르게 퍼져 나갔다. 능곡교회는 설립 2년 뒤인 189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 3일 동안 집회를 열어 38명에게 세례를 주고, 113명을 예비자로 선정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능곡교회를 설립한 4명의 선비는 후일 언더우드 목사의 청원으로 초대 집사로 세워졌고, 헌신적으로 교인들을 돌보았다.



능곡교회 입구에 마련된 사랑의 나눔 코너 '마르지 않는 샘'



한국 전쟁으로 교회가 전소되는 아픔 속에서도 건재하게 보존된 종탑

원당, 내곡리 등 5개 지역 교회 분립 개척

능곡교회는 인근 지역 교회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생과 청소년의 모임인 성사회를 발족해 운영할 만큼 청년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능곡교회는 노방 전도를 통해 지역 복음화에 매진했다. 성사회가 소속된 청년회는 지역 마을의 대소사에 나서 도움을 주며 선교 활동을 펼쳐 1947년 3월 원당(배다리)교회를 개척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교회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능곡교회는 1955년 미국 기독교회의 복구비 지원과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당을 새로 건축했다. 교회 건축을 통해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원당교회는 2년 뒤인 1957년에는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내곡교회를 개척해 김창국 강도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10년마다 새로운 지역교회를 개척해 온 능곡교회는 1966년에는 원당면 식사리에 동광교회를 개척했다. 교인들은 능곡교회에서 8km 떨어진 식사리까지 리어카로 건축 자재를 옮기며 교회 건축을 직접 진행해 그해 6월 12일에 입당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예배가 있었네

글 김형수 기자

갈바람 쌀쌀한 주일 저녁 예수사랑교정선교단 은희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해당 선교단은 수도권 각지의 목회자 세 분, 성도 일곱 분이 뜻을 모은 교정 선교 모임으로 2017년 이후 전국 20여 교도소에서 총 90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은희열 목사



예배 모습. 원래 사진 촬영은 불가한데 교도소에서 특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교정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젊은 시절, 질병과 심적 갈등으로 신학을 중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고난과 방황 속에서 거칠게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 목회자가 되었지요. 어떤 목회자로 살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혈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6)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아,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정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정 선교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도관들이 주일엔 출근하지 않는 관계로 주로 목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일정을 조율한 후 당일에 수도권 각지에 사는 회원들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약속 장소에 모여 함께 출발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교도소에 입소하여

약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많게는 500여 명에서 적게는 50여 명으로 매번 다릅니다. 인원이 많은 적은 예배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재소자 또는 예배가 있었나요?

예배 매 순간이 특별한 감동입니다. 예배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재소자 간증 시간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됩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엔 세례식과 세족식을 진행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적 사정은 밝힐 수 없지만 15년 형을 받은,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형제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정 선교의 현실은 어떤지요?

교정 선교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총 54개의 교정 시설이 있습니다. 재소자 종교인 분포는 대략 기독교 25%, 불교 15%, 천주교 10%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교정 기관에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목회자들이 재소자들의 성경 공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려운 점은 재정입니다. 저희 선교단의 경우, 교통비와 식대는 스스로 해결하지만 재소자 간식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후원을 해주시는 데도 늘 간식이 부족합니다.



세족식. 발을 씻겨 주면 다들 눈물을 글썽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세례식. 새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교정 선교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결혼 가정 부모가 수감되면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믿는 우리가 재소자 자녀 돌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소자 자녀 돌봄 기관과 연합하여 봉사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모임이 더 많은 교도소에서 갈급한 영혼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정 선교 목사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역에선 예배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겠지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에 별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었으니 예배에서도 격리되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어쩌면 재소자들이야말로 예수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국을 돌며 재소자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응원합니다.



'마더와이즈'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었다

병과 우울로 캄캄할 때 “미경아!” 불러 준 마더와이즈

글 김미경 집사(2022 마더와이즈 '지혜' 참가자)

약 부작용이 불러온 고관절 괴사

2020년 가을, 6년간의 싱가포르 생활을 정리하고 어린 두 아들(당시 2세, 4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가정 보육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24시간을 꼬박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둘째는 밤마다 깨서 제 허벅지를 베고 자 버릇했는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관절이 너무 아파 어느 순간부터는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다리를 절었지만 혼자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잠시 주춤해졌을 때, 아이들을 원에 보내고 병원을 전전했고, ‘고관절 괴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싱가포르에서 둘째를 임신했을 때 특발성 혈소판



☞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남편도 자녀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마더와이즈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려 혈소판이 제로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도 여러 번 가고 혈액암 병동에 입원도 했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야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괴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괴사한 상태에서 둘째가 무리하게 무게를 실어 통증이 생겼던 것이죠.

몸과 마음을 집어 삼킨 끝없는 우울

낙심과 좌절로 현실은 버거웠습니다. 끝없는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들게 되면서, 정신과를 찾아 검사를 받고,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 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의 시작은 아픈 몸이었지만, 몸에 차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정신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정이 차분하고 신실한 남편은 저를 많이 참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웬지 모를 불안과 불만, 우울한 감정으로 ‘엄마의 자리’와 ‘아내의 역할’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며,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이혼한다면 아이들은 당신이 데려가”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4년 연애하고 10년을 함께 산 부부로서 헤어

짐이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싫어서도 아니고, 단지 제 자신이 싫고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 ‘가정에서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예민하고 날카롭게 지으셨을까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가오면 두통이 생기고 불안이 덮쳤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고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도 불안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도 없었고 허용하고 방치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민한 내가 아닌 세심한 나였음을 깨닫는 시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교회에 상담을 신청하고 매주 상담을 받으며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더와이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은 화요일 하루였지만 말씀 공부는 매일매일입니다. 우울한 것이 저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의 우울을 말씀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어둠이 점차 물러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공감되어 웃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㉞ 무한 사랑과 따뜻함으로 '2022 마더와이즈 지혜'를 섬긴 강사 이미경 사모와 스텝들



㉞ 2022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에서 함께 훈련받은 '희락조' 동료들

나를 고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불신도 없어졌습니다.
 조 나눔 시간에 “저는 우울증이 있었으나 얼마 전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당돌한 말이었습니다. 우울증에 완치가 어디
 있고, 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서요.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제가 얻은 것 중 하나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기
 로 결심했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됨’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내가
 아닌 세심한 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컸던 나의 자아(
 자의식 과잉)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내도 될 수 없고, 엄마도 될
 수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의 관계를 다시 공부하고 나니 얼마나 내가 너털너털한 웃으로 나를
 가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필
 요 없는데 말입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마더와이즈의 향기

이제 부족하지만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는 아내, 아이들을 사랑의 담
 요로 덮어 주고 의로 훈육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가 되고자 합
 니다. 사단은 가정을 쓰러뜨리고자 어머니자 아내인 저를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결국 말씀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받은 마더와이즈 동료들, 신실하게 섬겨 주신 스텝들, 그
 리고 이미경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스텝들과 리더님은 저에게
 따뜻한 발파 작업을 해 주셨고, 절망의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
 축해 주셨고, “미경아!” 불러 주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나왔습니다.
 따뜻한 마더와이즈의 섬김과 티칭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엄마 크
 리스천으로서의 재사회화가 되어 갑니다. 마더와이즈 훈련 장소인
 비전홀에 들어가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입니다. 이것이
 마더와이즈의 향기입니다.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셨을지 가늠이 되
 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기도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쁘고 맛
 있는 음식과 센스 있는 말 한마디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까요? 점점 성숙해져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성드림학교, 제19회 YES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단체 부문 대상 수상



㉞ 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한 광성드림학교 6학년 학생들

제19회 YES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서 광성드림학교가 단
 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독후감 대회는 약 4,200여 개
 초등학교가 참여했고, 응모작은 초등학생 12,670편, 유치부
 독후화 2,094편이다.
 광성드림학교는 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단체 부문 대상, 개
 인 부문 동상 2명, 장려상 8명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㉞ 시상식 장소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대상의 깃발을 흔들다



호세아 Hosea

글 김은숙 기자

Image by jcomp on Freepik

성경 속 대부분의 서사는 비유이다. 그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며, 때가 되면 용서해 주신다는 비유를 호세아의 가정을 예증으로 보여준 것이 호세아 서함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마지막 호세아 왕(동명이인) 때 까지 활동하였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동시대이다. 여로보암 왕 재위(B.C. 794~753) 41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로 나라가 번성하고 풍요로워 겉으로는 태평성대였다. 그러나 안으로는 죄가 싹트기 시작했다. 바알신 등 혼합 종교를 섬겼고 술과 음행,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결과 B.C. 722년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예고한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아이까지 낳게 될 것이라 암시하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1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세 자녀 중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그 뜻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뜻하는 것이며, 딸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이다. 막내아들 로암미는 고멜이 불륜으로 낳은 아들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 준 것이다.

또한 7장 8-16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음의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에브라임을 책망하셨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

이방인들의 미신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오염시킴

어리석은 비둘기

심장이 없는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음

속이는 화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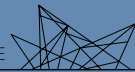
과녁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내 백성이라)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하라”

[호 2:1]

이 모든 과정을 호세아 가정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셨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우상 숭배와 방탕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것이고, 호세아가 불륜으로 아이를 낳은 고멜을 용서하고 노예 시장에서 다시 찾아온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남유다와 함께 통일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길을 묻다

기획 김형수 기자, 조희성 기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엔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올해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믿는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땐 길을 잃고 당황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도 있겠지요? 과연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올해 크리스천이 가야할 길을 묻고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운용 총장님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을 물었습니다.



길을 묻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운용 총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5~6)

1. 한국교회가 성장기를 지나 정체 또는 쇠퇴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교 2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전환기적 위기 상황’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지켜 왔고 수행해 온 많은 사역과 더불어 수천 년 목숨을 걸고 지켜 온 여러 신앙 행위와 예배마저도 묶여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사적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학과 신앙생활의 ‘재개념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울러 코로나는 ‘종교 위상 격하’의 상황을 만들었고 신앙 활동의 위축, 감퇴 현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신앙생활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를 맞았다, 한국교회 잔치

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기에 그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본질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듀크대학교 교수였던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후기 기독교(post-Christendom)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덕과 윤리의 함양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깊이 동의합니다. 1~4세기 초기 기독교는 깊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2~3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돌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로마를 넘어 세계 종교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예배 신앙을 세워가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더 착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위기’는 ‘출산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과거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가능성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교회 역사에도 위기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지만,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우뚝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우뚝 서 있을 때 교회와 주님의 사역은 세워졌습니다.

2. 코로나, 또는 이와 비슷한 위기는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기후 변화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위기가 다시 또 발생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불안에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초기부터 세상과 격리된 집단(ghetto)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적 공동체였으며, 세상의 이익 집단에 대해서는 ‘대안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역사의 굴곡에

서서 민족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공동체성의 회복, 교회의 공동성 회복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특히나 더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재앙이었습니다. 생태계의 오염과 기후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간이 편리만을 추구하고 있을 때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땅 위의 모든 동식물의 15% 이상이 멸종하게 된다고 하지요. 식량 위기와 물 부족 외에도 자연재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 운동, 생태계 보존 등 환경 보존 운동에 더 앞장서야 합니다.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3.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박해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는 이를 개혁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과연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 또 어떻게 연합해야 할까요?

신앙인의 관점에서 부정적 시각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불교



대한민국은 방역 중

나 가톨릭과 같이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가진 종교의 경우 일반 언론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개교회주의의 특성을 가진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 복지가 많이 발전했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한국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손을 떼면 한국 사회의 사회 복지는 중지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교단이나 교단 연합 단체 등에서 대사회적 창구와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차원이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면서 개선하고 개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 왔지만 교회는 그늘진 곳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동참의 정신으로 사회적 돌봄에도 더 앞장서야 합니다.

4. 팬데믹을 겪으며 소규모 교회의 생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기독교 선교, 봉사 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요?

개신교는 교단도 있고, 교단 연합 기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교회주의를 통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주인이신 공교회성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도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까지 예배 참석자 숫자를 중심으로 일렬로 세워 놓고 보니 51명이 그 중앙에 위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0% 이상이 출석교인 100명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에서 미자립 교회를 돕는 정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시 교회가 시골 교회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공교회성의 관점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만의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 봉사를 통한 유대나 놓여준 교회 생산물의 유통 등 많은 부분에서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5. 2023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지점에 히브리대학교 교수 유발 하라리가 한 이야기 생각납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교회는 존립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첫사랑의 정열’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상황에서 제시하신 해법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였습니다. 방법론적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 차원을 강조한 것이지요.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re-formation)은 언제나 ‘본질의 추구’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신교 역시 ‘아드 폰테스(Ad fontes)’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은 이 전통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종교 개혁의 정신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복음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야 하겠고, 예배 신앙 회복에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뢰도는 추락하고, 대국민 이미지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이탈과 교회 간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도 더 심화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시 교회와 사역을 세워 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영적 기상도는 분명 어둡습니다. 하지만 생명 사역, 빛의 사역은 언제나 어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 속의 외침처럼 ‘별의 바탕은 어둠’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시인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힘을 내라는 말이지요.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분쟁과 탐욕, 미움과 갈등,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역병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으며,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까지 가시화되면서 부메랑이 되어 인간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 첨단 세상을 열어 가고 있지만 인간 소외와 갈등, 탐욕의 늪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장벽은 갈수록



코로나 없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록 높아 가고, 복음은 하찮은 것이 되어 버렸으며, 교회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시답지 않은 시가 넘쳐 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를 보여 주어야 할 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정란의 시’가 넘쳐 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시’로 형상화 한 단어에 ‘예배, 설교, 교육, 선교, 봉사, 찬양 사역...’ 등의 단어를 넣으니 가슴에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정란의 설교, 무정란의 예배, 무정란의 교육, 무정란의 선교, 무정란의 사역. 무정란과 유정란이 분간되지 않고, 생명 없는 것이 판을 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이름 드러내기엔 분분한 시대, 거룩한 사역마저도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 변질 되어가는 시대, 거짓이 판을 치고, 거룩한 자리에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 판을 치는 시대. 생명 사역에는 생명이 요동쳐야 하고, 복음이 요동쳐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것들이 요동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무정란의 시대를 향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부를 걸었습니

다.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님 부활 승천하신 지 50여 년이 지나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와 순교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반듯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규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00여 년이 지난 후 그 긴 시간 그렇게 핍박의 철퇴를 가했던 제국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과 전역에 2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묶여 있었으나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 춤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정란의 시대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펼쳐 가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불어넣고, 찬양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지친 영혼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섬김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 말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힘차게 달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student reporter



시작

글 최아인 기자(겨자씨 제1기 학생 기자)

‘시작!’

누군가에겐 설렘, 또 누군가에겐 부담스러운 시작이라는 단어. 다들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파릇파릇한 새싹? 불타오르는 의지 혹은 그 반대인 작심삼일? 나는 유난히도 ‘Happy New Year’가 떠오른다. 새해아말로 또 다른 365일의 시작이어서일 게다. 사람들이 ‘Happy New Year’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들으면 시작의 설렘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시작’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하다가 나의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떠올렸다. 자유로웠던 자유학년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중학교 2학년의 시작은 나에게 부담과 공포였다. 첫 기말고사를 보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내 머릿속은 걱정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흔히 말하는 폭망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 과목에서 얻은 65점, 처음으로 받아 본 60점대의 성적. 영어와 수학은 별도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 학원 선생님들이 준비하라고 일러 주셨던 것을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과학은 방법도 몰랐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하굣길에 교문 밖을 나서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아빠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동안 꺾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나서까지 아빠랑 통화하며 펄펄 울었다. 그때 아빠가 해 줬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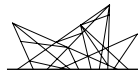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니 2학기를 같이 잘 준비해 보자. 딸, 파이팅! 그리고 수고 많았어.”

그 이후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름하여 ‘부족한 부분 채우기 프로젝트’였다. 여름방학 동안 손대기도 싫었던 과학을 꾸역꾸역 연습하고 학기 중에도 국어보다 과학을 더 많이 공부했다. 문제집 사이트에 가입하여 최다 빈출, 최다 오답, 고난이도, 강남3구 문제까지 시험 범위에 속한 모든 부분을 프린트하여 학교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톹툰 풀었다. 매주 주말엔 쌓여 있는 오답을 체크하고 다시 풀어 보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그때 우리 집에 있는 A4용지는 아마도 내가 다 쓴 것 같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새 학기가 시작되자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과학을 신청하였다. 집에 일찍 가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매주 수요일 수학 학원에 가기 전, 두 시간 정도 참여했다. 평일 점심시간에는 과학 보충 선생님을 만나서 숙제 확인 및 오답 노트를 체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교과서 정독을 다섯 번 정도 더 했다.

시간은 흘러 대망의 2학기 중간고사 날, 그간의 노력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나는 100점을 받았다. 이처럼 부족한 ‘시작’이더라도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포기하거나 그냥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고 보완하면서 완성형에 가까운 ‘끝’에 다가가고 싶다. 이번 겨자씨 기자단의 막내 기자로서 지금 당장 나의 시작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student reporter



삶이란

글 이하음 기자(겨자씨 제1기 학생 기자)

온 우주의 것들을 통틀어 설명해도 충분치 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바뀌는 계절 속에 가장 자신다운 것을 입고, 오늘도 나에게 그들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일생은 그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못해 흘러넘친다. 가끔은 그것이 나를 매섭게 덮쳐와 가득 채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삶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왜일까? 투명하게 빛나는 아침의 햇살이 나에게 올 때, 새벽의 환상이 이슬이 되어 수선화에 앉을 때마다 나는 나의 전심을 다해 그것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다.

삶을 담고자 나는 흔들리는 별 하나까지 사랑하게 되었고, 삶이 나를 담기에 삶은 나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해 준다. 맘껏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삶의 작은 부분을 사랑하지 못해도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도 난 내가 사랑하는 삶의 모든 모습을 정처 없이 써 내려 갈 것이다.



삶은 반짝이는 유리알 같은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유리알을 가지고 오늘의 기억을 써 내려간다. 오늘이 나에게 견뎌 내기 힘든 일물이 되었다면, 내일의 일출은 나에게 찬란하게 흔들리는 빛의 조각을 줄 것이라 믿는다. 그 빛의 조각이 나의 유리알에 닿을 때 눈이 부시게, 아니 모든 것이 부서지도록 빛난다. 오늘의 순간이 너무 빛나서 나의 기억 속 공상이 되어 번진다.

그렇게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나의 유리알에 자리 잡는다.

삶은 파도 같은 것. 삶의 모든 순간은 나에게 와 가볍게, 가끔은 매섭게 깨질 듯 휘몰아친다. 나의 바다는 그 파도의 투정을 이겨 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의 바다 속 파도들은 서로의 기억과 짙은 감정을 가지고 내 바다를 지배한다. 아프다. 나의 바다만을 지켜도 나의 것들은 충분치 못하는데, 그럼에도 파도는 온다. 내게로 온다.

그렇게 폭풍의 절벽에 도착해서야 나의 바다는 그 파도들을 잠재운다. 사실은 오늘을 살기 위한 바다의 온전한 몸부림이다. 이것이 나의 바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씩씩한 마음이 덩그러니 나에게 와 전해진다. 파도의 어리광마저도 바다를 안아 줄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럴 때마다 바다는 나에게 말한다.

이제는 너를 아프게 하는 모진 것들에게 나를 내어 주지 말라고, 나는 그저 너의 기억 속 예쁘게 피어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도 충분하다고. 오늘도 나는 나의 것들로만 가득 피워 내도 버거운 것들을 사랑하겠노라 또 한 번 다짐한다.

삶은 새해의 피어나는 햇살의 운치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름 모를 꽃의 용기이다.



삶은 나에게 분명한 전개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삶의 변덕은 높이 자라 단단한 누구의 마음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도 나는 다시 다짐한다. 나의 삶에서 반짝이고 빛나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사랑해 주고, 그 한순간의 청명한 기억 뒤로 드리우는 차가운 어둠이나 나의 턱 끝까지 차오를 때, 무수히 쏟아지는 외로움 한 점마저 놓칠 수 없는 비참함의 순간마저 사랑할 순 없겠지만, 사랑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나다운 오늘의 나를 사랑하겠다. 이제는 삶의 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이름 모를 꽃들의 용기가 모여 밤하늘을 밝힌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오늘은 어떠한 형태로 남았나요? 괜찮아요. 내일의 해가 뜨는 이유는 당신만을 고스란히 밝혀 주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선교에 더욱 매진하며 한해를 마무리한 초등부

글 전영숙 기자

믿음의 크기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에 집중하는 초등3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초등6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은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1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좋게 자라난 모습을 확인해 보자.

말씀과 찬양에 집중한 초등3부

코로나19의 재확산 움직임으로 인해 2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게 되자 초등3부는 지난 10월부터 말씀과 찬양에 집중했다. 예배 시간 총 50분 중에서 25분은 찬양에 집중했고, 광고와 봉헌을 제외한 나머지 20분 동안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2부 활동도 말씀 암송으로 이어 갔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2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이들은 찬양 시간에 그 누구보다 즐겁게 찬양했고, 길고 긴 설교도 최선을 다해 들으려 노력해 줘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어요.”

주보에 말씀을 암송한 아이들 이름이 가득 차고,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넘쳤다고 말하는 방성빈 전도사. 아이들의 마음 밭,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온 교역자와 교사들은 연초와는 다르게 몸과 마음이 자라난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고 한다. 초등3부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3 단순히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에 그치지 않고 기도에 더욱 힘
쓰는 초등6부

4 극장예배를 통해 영화 관람
도 함께 하며 믿음을 키운 초
등6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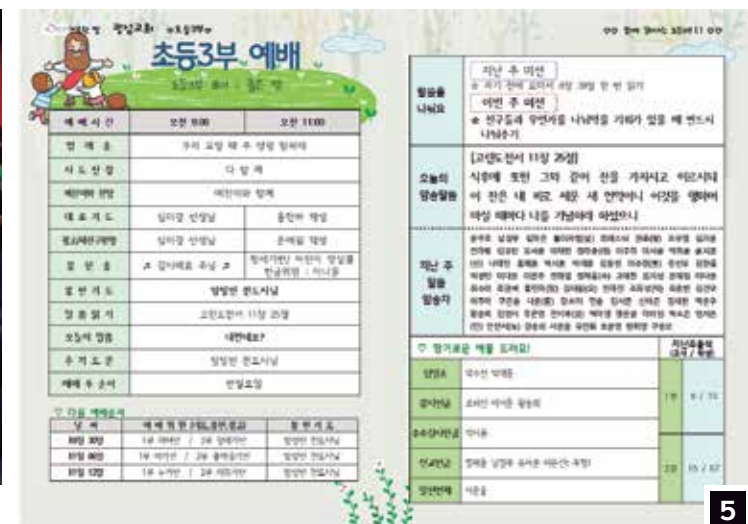
5 초등3부 주보는 말씀 암송한
학생들로 빼곡하다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는 초등6부

결실의 계절을 보내면서 초등6부는 선교와 이웃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진우 선교사와 조정빈 선교사를 1년간 후원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매주 셋째 주에 각자 작성한 선교헌금을 드렸다. 뿐만 아니라 매달 선교 사역지의 소식을 접하면서 듣게 되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선교에 대한 마음과 간절함이 더해지며 보내는 선교사를 넘어, 가는 선교사의 꿈을 꾸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어 유현애 전도사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10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과일과 곡물들을 모아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기도 했다. 또한 이날 초등6부 전체는 극장예배를 드리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극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기적을 믿는 소녀>를 관람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얼마나 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믿음을 키우고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더욱이 극장예배 후 반 모임을 하면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예배의 히어로와 ABC제자훈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중등부

글 정은숙 기자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중등부는 3주간 예배 캠페인 ‘예배의 히어로’를 경험했다. 그것은 바로 매주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로 향하는 소중한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1주 차는 9시까지 예배실 도착하기, 2주 차는 5분 일찍 예배실 도착하기, 3주 차는 성경책 준비해서 10분 전 도착하기와 같이 매주 한 가지 미션이 부여되고,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확인 스티커를 받아 세 번째 주에는 푸짐한 선물을 증정했다. 소중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노근호 부감교사는 “중등부 현장예배가 열린 이후로 예배 캠페인 기간에 가장 많은 학생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학생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등부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주간 하반기 제자훈련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73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매주 랩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차근차근, 그리고 즐겁게 성장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안에서 함께 배우며 교제하고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최성직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와 닮길 소망하며 당장은 아닐지라도 일생의 삶 동안 꾸준히 자라나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것”을 확신한다며 기뻐했다. 학생들이 ABC제자훈련의 주제대로 ‘하나님, 구원, 복음’에 대해 배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성경적 가치관을 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1 중등부 예배 캠페인 ‘예배 히어로’의 뜨거운 현장

2 복음과 함께하는 중등부 ABC 제자훈련

충성된 사도 바울을 꿈꾸는 역동적인 고등부

글 정은숙 기자



1 고등부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훈련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가는 고등부

2 고등부 여름수련회에서 진행된 10인 10색의 교사특강

3 고등부 수능 40일 기도집 『수고했어, 오늘도』와 응원 방송 유튜브 라디오

4 예배 시간 대표기도

고등부는 2022년부터 공관복음을 함께 읽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전반기 누가복음 통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마태복음을 전격적으로 읽어 나갔다. 매주 교사들과 학생들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하여 오디오 복음 제작하고, SNS 및 단톡방에 공유하며 매일 말씀을 함께 읽었다.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성경통독 온도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읽은 말씀 분량만큼의 금액을 부모님들이 기부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일산과 파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온도계가 채워지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누어 주는 신나는 행사였다.

신연섭 전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이 고등부 모두를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등부는 수능 40일 전부터 수험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말씀 묵상집을 출간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꿈담교육부 교역자 13명이 집필한 묵상집은 친절한행정실에서 수험생 부모님들과 수험생을 위해 배부하였다.

이와 함께 매일 자정에 유튜브를 통해 ‘수고했어, 오늘도’ 수능 40일 응원 방송을 진행했다. 꿈담교육부 교역자들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행을 했는데, 진심 어린 기도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김한 목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청년광장



광성청년FC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바쳐라

글 조희성 기자

10명에서 50명 넘는 큰 공동체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는 즈음에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광성청년FC는 광성교회 청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지체 간의 화합을 이루고, 서로 더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숫자로 시작한 공동체는 이제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서로 팀을 나누며 경기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광성교회 청년들의 모임 중 가장 큰 공동체가 된 광성청년FC의 2022년 마무리 경기를 거자씨를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 광성청년FC로 함께하세요

2022년 마지막 경기

2022년 마지막 경기는 10월 3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정건강공원에서 광성청년FC 팀원들 간의 친선 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경기이다 보니 팀원 대부분과 청년부 목사님들, 응원하는 청년부 인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묵상기도가 있었고, 몸을 푸는 시간을 가진 뒤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꽤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청년들은 강한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기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의외로(?) 목사님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선우 목사님은 그동안 광성청년FC를 지탱해 온 '중원의 마에스트로'로 최재욱 목사님은 '철벽의 왼쪽 수비수'로 매 경기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셨습니다. 청년들의 의욕도 남달랐습니다. 광성청년FC 주장으로 섬기는 강철민 형제는 '강철 체력의 미드필더'로, 1청 리더로 섬기는 문찬기 형제는 '진공청소기 우 풀백'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팀원들은 서로 포옹하며 한 해를 함께해 주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2022년 광성청년FC의 한 해의 막을 내렸습니다.



1



2



3



4



5

1 기도로 시작하는 경기

2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는
광성청년FC

3 청년부 최재욱 목사님

4 광성청년FC로 10명을 전도
한 막내 김민후 형제

5 골 세레모니 중인 청년부 차
선우 목사님

단절된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축구 선교

광성청년FC는 지금까지 다양한 교회의 청년들과 경기를 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덕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축구를 통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19로 단절된 공동체의 명목을 이어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남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광성교회 청년부가 비교적 남자의 비중이 큰 것에는 아마도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축구의 힘이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역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부 목사님들은 매 경기에 같이 참여하여 교역자의 교체와 우애를 다지는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기도로 섬겨 주신 부장 집사님, 장로님, 위임목사님의 후원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가끔 강대상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목사님과 서로 몸을 부대끼며 경기할 때 축구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축구 선교는 21세기에 생겨난 새로운 선교 용어가 아닐까요? 점점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사회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답변으로 내놓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모여 건강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서로 어울릴 때 축구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단절된 집단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축구라는 하나의 스포츠가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 주었습니다. 광성청년FC를 통해 이루어진 많은 사역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2023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회장 강철민

‘소통하는 청년부’를 위해, 쉽 없이 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글 강철민

거룩한빛광성청년부, 강철민 청년

안녕하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를 회장의 직분으로 섬기게 된 93기수 강철민입니다. 저는 반려묘인 콩이 아빠이자, 지난 9년간 해 오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에도 전하는 여느 평범한 청년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5년 어머니 친구 분의 소개로 온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에서의 함께함이 저희 신앙생활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처음 아무도 모르는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불안함이 무색할 만큼, 새가족반에서의 환영과 청년부 양육팀에서 받은 사랑으로 공동체 속으로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청년 강철민에서 강철민 회장으로 출마하기까지

2020~2021년 청년부 양육팀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고, 작년 2022년 팀장으로 섬기면서 리더십의 자리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노력하였고, 많은 도움 속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환경에 따른 내적, 외적 고갈에 잠시 쉬어 갈까 고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부 회장 후보 추천에서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제가 섬기고 있던 팀의 많은 청년이 23년도 리더십의 자리를 섬기는 데 기꺼이 동참해 주는 모습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체적 발걸음, 청년부 회장 투표

기존의 청년부 회장은 담당 사역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져 연말 총회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청년부를 움직여 가는데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 시작인 청년부 회장 선출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습니다. 회장 후보에 대한 기준을 사역자가 안내한 후 직접 청년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았고, 추천자들과 소통하며 2023년을 준비할 두 명의 후보자가 세워졌습니다. 선거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튜브 라이브 토론회를 통해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등 청년들과 사역자가 함께하는 청년부를 그려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선우 목사님과 후보로 나와 같이 동고동락한 윤명철 형제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지난 가을, 팀 MT 식사 교제



◇ 소중한 양육 공동체



청년부를 향한 마음, 그리고 소망

지난 3년간 리더십 자리를 섬기면서 저의 부족했던 점, 고쳐야 할 점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공동체의 함께 섬기는 많은 형, 누나, 동생들에게 고민을 터놓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많은 분이 함께 중보해 주셨고, 사역자님과도 같이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회장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점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이 청년부를 나 혼자 이끄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섬기고 나아가간다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청년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을 지키지 못해 떠나간 많은 청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22년도 완료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다시 청년들이 모이면서 작은 희망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줌 모임을 시작으로 6월부터 추진된 오프라인 모임, 3년 만에 1박으로 진행된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가을엔 말씀 사경회와 팀별 1박 2일 MT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이 모이고 교제하며 지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

하고 그리워했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성청년FC를 통해 많은 공동체 형제와 교제하면서 예배 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은 형제들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3년에는 더 많은,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이 모여서 교제하고 관계를 쌓고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2~5)

작년 팀장으로 섬기면서 매주 목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회에서 청년들의 투표로 회장이 선출되었다



◇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두명의 후보자가 선거 공약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나의 2023년

글 김재원(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2022년 한 해는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갈수록 심해지고, 약도 점점 늘어나는 데다 인간관계도 원만하지도 않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든 일이 정말 많았어요. 늘 부정적인 저의 행동과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기가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아픈 기억 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이란 걸 몰랐던 아이였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저의 곁에 있어 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울이라는 늪에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은 좀 우울한 한 해였지만 2023년도에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보다 나은 내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끝까지 제가 버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 2023년도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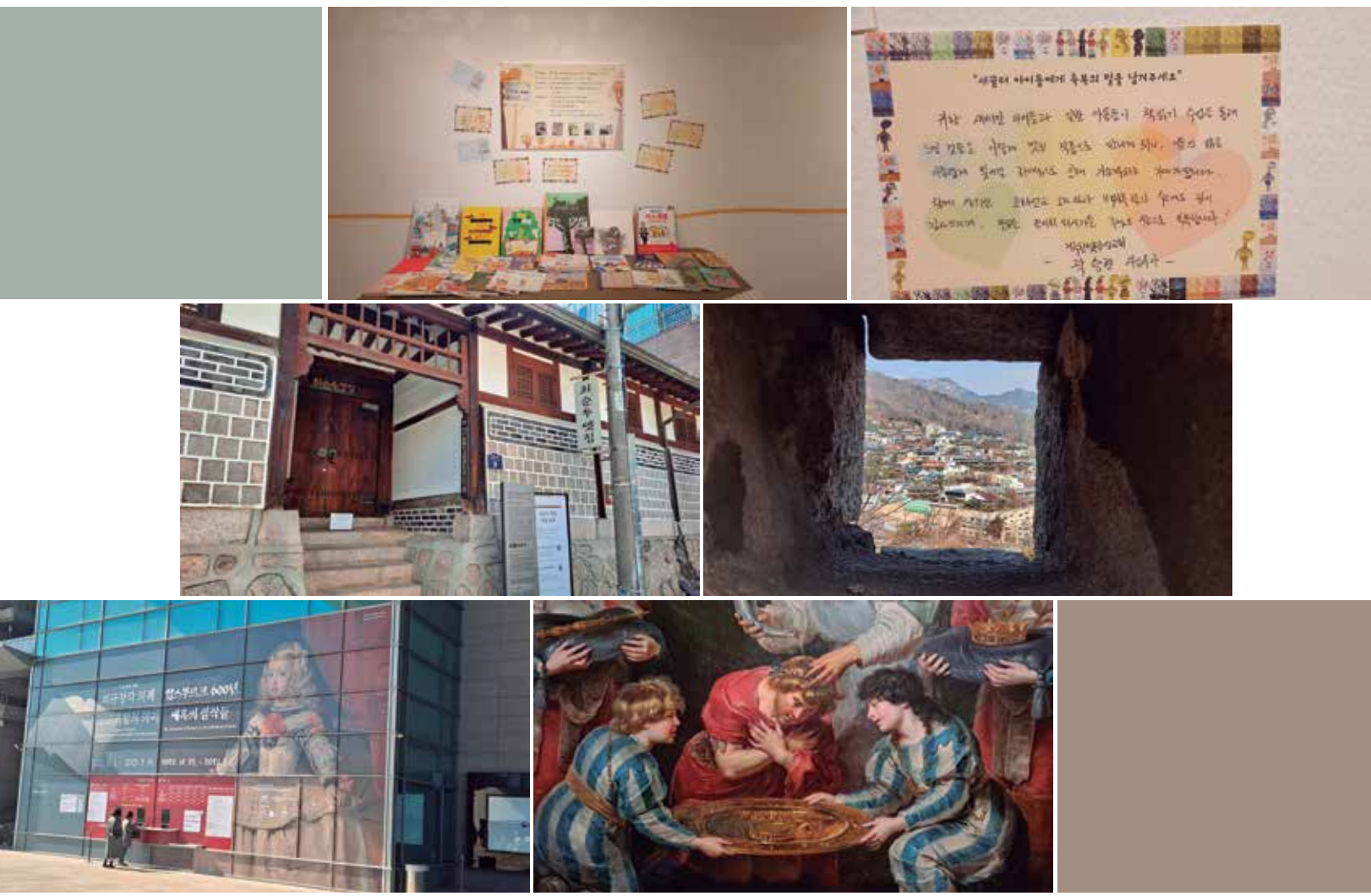
1



3

- 1 섬김을 주고 받았던 형제들
- 2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의 삶
- 3 언제나 힘이 되어 준 청년부 공동체

문화산책





희망의 새해

작가 노트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년 차로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비늘구멍 같은 일자리,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서
일상에 지치고, 힘든 현실에 오늘을 보내는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새해의 꿈과 희망을 전해 주고자 담아냈습니다.

종이배를 탄 행복한 가족은 다시 희망의 꿈을 품고 2023년을
힘찬 항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으며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밝은 색채는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겨자씨 독자 분들의 희망의 새해, 새봄을 응원합니다.



‘긍정인생 행복인생’을 그리는
작가 최길수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다수의 광고 공모전 입상을 통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잡지나 교과서 등에 카툰과 일러스트를 연재하거나 포스터, 광고 등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작했다. 작가는 가족, 호랑이, 자연, 돼지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일상 소재를 자기만의 색깔로, 행복의 시각 언어로 작품에 표현해 일상의 소중함과 긍정·행복을 그리며 전시·작품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머스타툰

함정현 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글 김은숙 기자(수필가, 필명 김지형)

우리는 지금 현대 문명사회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얼마나 안전한가? 여러 미디어에서는 기후 위기, 환경 위기, 식량 위기, 전쟁 위기 등 암울한 뉴스를 연일 보도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D Thoreau)의 『월든(Walden)』은 그가 28세 때인 1845년부터 1847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미국 메사추세츠 주 콩코드 숲의 월든 호숫가 숲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에세이집이다. 그는 명문 하버드를 졸업한 후 교사, 개인 교수, 측량 기사, 목수 등 여러 직업을 거쳤으나, 뜻한 바 있어 ‘참다운 삶’을 체험하기 위해 월든 호숫가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손수 통나무로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이 책이 20세기에 들어서부터 생태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며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았던 19세기에 이미 미래를 내다본 통찰력과 그의 소박한 삶이 현재 우리의 생활을 성찰해 보아야 할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관찰자로서 자연 예찬에만 그치지 않고 숲의 경제학적 세밀한 연구와 유려한 문체는 오늘날 환경, 경제 과학의 지침서임은 물론 문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중 제4장 「숲의 소리들」 속의 서경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발췌해 보았다.



ㄴ 돌로도 깰 수 없는 가을날의 월든 호숫가. 마치 하늘의 거울인 듯,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호수인지..



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ㄴ 겨울 숲을 산책하다 지친 방문객이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와 몇 권의 책을 뒤적일 수 있는, 소로우가 손수 지은 자작나무 숲속의 작은 오두막집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의 집 근처 커다란 숲에는 리기다소나무, 호두나무가 무성하고 집 앞의 뜰에는 검은 딸기, 보릿대국화, 물레나무, 월굴나무 등이 자란다. 가을이 되면 큼직하고 보기 좋은 열매들이 무계를 이기지 못하여 방사선 모양의 화환처럼 사방으로 휘어진다.

한여름 오후, 창가에는 매, 산비둘기가 날고, 물수리 한 마리가 호수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물고기를 채 가지고 날아오르고, 밍크 한 마리가 물가에서 개구리를 잡아챈다.

이때 보스턴에서 시골로 향하는 기차의 바퀴 소리, 기관차의 기적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숲을 뚫고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매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일요일 중 어떤 날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마을에서 들려오는 은은하고 감미로운 종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이 종소리는 넓은 숲을 지나올 때 하프를 쳐듯 숲속의 솔잎을 하나하나 건드리는 것처럼 떨리는 음색이 가미되어 들려온다.

여름 저녁이면 쉼새들이 문 앞의 나무 그루터기나 지붕의 용마루에 앉아서 저녁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해가 지고 나서 5분 이내에 거의 시계처럼 정확히 노래를 시작한다.

이 새들이 조용해지면 이번에는 부엉이들이 바통을 이어 받아 그들의 태곳적 음산한 울음을 시작하고, 올빼미들은 우울한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박새는 상록수 틈에서 지저귀고, 들꿩과 토끼는 숨어 다닌다.

그가 숲에서 얻은 수많은 어록 중에는 자연 예찬과 더불어 문명 비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월든 호수는 돌로도 깰 수 없는 숲의 거울이다,’ ‘보스턴에서 들려오는 철마의 쇠발굽 소리는 자연 파괴의 주범이다,’ ‘석양에 물든 하늘만큼 숭고한 그림은 없다.’ 등등.

그가 하버드를 졸업할 때의 증서가 양피지(양가죽)로 만들었다 해서 1달러 내기를 거부했다는 일화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다른 사람은 그 위용에 감탄할 때, 제발 돌들은 그 자리에 두어라고 했으며, 인간이 ‘한 소나무의 죽음’을 애도한 적이 있느냐 등은 그가 얼마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이게 보존함을 중시했느냐 하는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노예해방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인두세 납부 거부로 옥에 갇히는 등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였으나 불행히도 45세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그가 살던 콩코드 숲의 무성함, 이름도 다채로운 각종 꽃나무, 산비둘기와 물수리, 들꿩, 토끼 등 각종 날짐승과 들짐승과의 숨바꼭질, 쉼새의 저녁 노래, 부엉이와 올빼미의 우울한 세레나데, 박새의 지저귀는 각박한 현대 생활에서 상상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진다.

일찍이 월든 호숫가 숲에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자연과 일체된 삶을 살며 기록한 이 한 권의 책 『월든』은 기후 위기, 환경 위기 등 각종 재앙에 대처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안목에 박수를 보내며



글 강혜미 기자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 진행된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대표 소장품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회화를 비롯해 공예품과 갑옷, 태피스트리 등 총 96점의 전시품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나는 미술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다지 관심도 없었다. 그러다 2007년 데이트를 핑계로 미술 전시회에 발을 디뎠다. 당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던 ‘오르세미술관 소장품展’이었다.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고흐의 <아들의 고흐의 방>, 밀레의 <만종>과 같은 미술에 문외한이었던 나도 알 만큼 유명한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림마다 한참을 뉘 놓고 쳐다보느라 4시간도 넘게 머물렀었다. 그 기억이 좋아서였을까? 이후부터 그 감동을 잊지 못해 해마다 몇 번씩 미술 전시회를 찾곤 했다.

그리고 2년 전, 인문학을 콘텐츠로 하는 책의 편집을 맡으면서 미술을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저 보기에 좋은 그림이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가 그러하듯, 화가 역시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진 시대와 배경, 화가를 안다면 그림을 이해하는 폭, 그러니까 화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일종의 팁을 얻을 수 있었다.

1. 마리아 크리스티나 대공의 약혼 축하연_요한 카를 아우어바흐

2. 우물가의 리브가와 엘리에셀_오타비오 바니니

3.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_디에고 벨라스케스



그렇게 미술에 관한 관심이 한 겹 한 겹 쌓여 가고 있는 와중에 알게 된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는 발걸음을 재촉하기에 충분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지척에서, 이다지도 쉽게 볼 수 있다니. 전시 기간은 2023년 3월 1일 까지로 넉넉한 편이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전시가 시작되자마자 가 보았다. 게다가 빈미술사박물관은 책 작업을 하며 한창 관심을 쏟고 있는 플랑드르의 화가 피테르 브뤼헬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전시에서 피테르 브뤼헬의 작품을 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의 아들인 얀 브뤼헬의 그림을 본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식물 중에서도 꽃을 세밀하게 그리기로 유명한데 이번 전시에서 그가 그린 <꽃다발을 꽃은 파란 꽃병>을 감상할 수 있다. 메멘토모리를 상징한다는 떨어진 꽃잎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빠졌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전시회 포스터에 사용된 <흰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였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공주가 5살이 되던 해에 그린 초상화다. 지금은 스마트폰 덕분에 자녀의 예쁜 모습을 언제나 카메라로 담을 수 있지만 16세기에는 그림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터, 아무 연관이 없는 내가 보아도 저리 예쁜 딸의 모습을 초상화로 남긴 것을 보면 펠리페 4세 역시 딸바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또 예상하건대 벨라스케스 공주를 아끼는 마음이 크지 않았다면 5살 어린 소녀의 초상화를 저리도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 그는 젊은 나이에 스페인 왕실의 궁정화가가 되어 평생토록 왕가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만큼 펠리페 4세의 신뢰가 두터웠으리라. 자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왕의 어여쁜 딸이었으니 애정을 담백 담백 그림을 완성했을 게다. 공주의 새하얀 피부와 빛나는 금발, 드레스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감탄이 새어 나온다. 마치 그림 너머의 공주가 살아 움직일 듯 사실적으로 묘사한 덕분인데, 벨라스케스의 섬세한 붓 터치가 그저 놀랍다.

이 외에도 관심이 갔던 작품은 요한 카를 아우어바흐가 그린 <마리아 크리스티나 대공의 약혼 축하연>이다. 해당 작품은 2미터가 넘는 크기에서부터 좌중을 압도한다. 약혼 축하연이라고 하면 형형색색으로 치장해도 모자랄 텐데 희한하게도 그림의 중앙에는 검은 휘장이 늘어져 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대공의 어머니는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일한 여성 군주이자 마지막 군주인 마리아 테레지아다. 남편 프란츠 1세와 사별한 후 무려 15년간이나 검은 상복을 입었다고 한다. 해당 축하연은 프란츠 1세가 죽고 고작 1년 후에 열렸기에 이를 기리려는 뜻에서 검은 휘장을 내렸다고 알려진다.

참고로 이번 전시에는 상복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초상화도 감상할 수 있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한 덕택에 당대에 유명하다는 화가들이 그린 합스부르크 왕가의 초상화가 많은

데, 이번 전시회에서 그중 상당수가 전시되었다. 전통적으로 결혼에 의해 세력을 확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혼을 장려하여 유전병이 있었는데 바로 주걱턱이다. 오죽하면 주걱턱을 일컬어 합스부르크 립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왕가의 초상화를 그릴 때 턱 부분을 미화시켜 달라고 했다는데, 그럼에도 초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턱으로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왕가의 초상화들은 하나 같이 왕족만이 가지는 기품과 위엄이 느껴진다. 몇백 년이나 유럽의 주인공이었던 왕가였으니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붓을 들었을 것이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일찍이 예술이 지닌 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모양이다. 그러니 예술품들을 수집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지 않았을까? 그저 가문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한 영리한 선택이라고들 하지만 그 역시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니 해석이야 어찌 되었든 그들의 안목은 박수받을 만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BTS나 K드라마를 보며 예술과 문화의 힘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앞서 언급한 것은 이번 전시의 극히 일부분. 이번 전시는 9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이는 만큼 시대별, 지역별로 나누어 총 5부로 구성해 작품의 이해도를 높였다. 무려 600년이나 유럽을 호령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예술적 안목이 궁금하다면 부디 발걸음하여 직접 느껴 보기를 바란다.

성북동 걷기 두 번째

두문즉시심산과 마저절위의 뜻을 새기며

글&사진 전영의 기자

걷기 좋은 곳, 한 번 걸으면 다시 찾게 되는 곳.

그런 곳 중 하나가 성북동이다. 성북동에서 햇살이 가장 먼저 닿고 달빛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북악산 성곽 바깥 첫 동네 북정마을. 북악산 능선을 따라 산비탈에 웅기종기 들어앉은 북정마을은 김광섭 시인의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된 마을이기도 하다.

단한 '최순우 옛집' 때문에 기대서서

한성대역 5번 출구, 바람이 매서웠다. 성북동 걷기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백석 시인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찾아 성북동을 여행했었다.

도성 밖 마을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아 몇 걸음 사이로 걸음이 멈춰지는 성북동에서 오늘 나는 '최순우 옛집-심우장-북정마을-금왕돈까스'를 걷는다.

겨울엔 관리가 어려워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왔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의 저자 최순우 선생이 생을 마칠 때까지 살았던 '최순우 옛집' 빗장을 풀지 않은 최순우 옛집 밤색 나무 대문 틈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의 향나무가 참 푸르다.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르다는 것을 안다고 했던가! 향나무는 문 안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문밖의 내가 안쓰러운 듯 푸른 바늘잎을 미동했다.

선생이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를 집필했던 사랑방 출입문에는 편액이 하나 걸려 있다. 선생은 편액 속에 친필로 여섯 글자를 써넣었다.

‘두문즉시심산(杜門卽是深山)’.

문 닫으면 즉시 깊은 산 속이라는 뜻. 사랑방 문을 닫는 순간 들끓음, 번잡함, 외부의 온갖 소음과 절연했던 선생. 그것도 즉시!

선생은 그게 마음먹은 대로 척척 되었나 보다. 문밖 세계보다 한없이 드넓고 열려 있었을 선생의 작은 사랑방. 굳게 닫힌 최순우 옛집 때문에 기대서서 선생의 사랑방을 물들이던 그 향기를 그려 본다.

1. 북악산 성곽을 따라 왼쪽은 성북동, 오른쪽은 한양도성 안쪽

2. 북악산 성곽의 암문(暗門). 왼쪽 사진은 북정마을에서 도성 안을, 오른쪽 사진은 도성 안에서 북정마을을 바라본 모습

3. 70년대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북정마을 골목길. 녹록치 않았을 삶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사람 냄새 퍼지기에 걷기 좋다



4



2



3

심우장과 마저절위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니 '님의 침묵'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이 나왔다. 북향집이다. 남향으로 터를 잡을 경우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게 되므로 북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심우장에는 선생의 글씨, 옥중 공판 기록, 논문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마저절위(磨杵絶羣)'란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곡식을 뿔는 절굿공이가 닳아서 바늘이 되었고, 책을 묶은 가죽 끈이 닳아서 끊어져 버렸다’.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만큼.

간절함이 아니면 무엇을 이루랴. 절박함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삶이 아닌가. 선생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마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골목 정취 살아 있는 북정마을

오래된 것에는 힘이 있다. 그 무엇이 범접할 수 없는 고유의 힘이. 오래된 골목길 또한 그렇다. 성북동에도 그런 골목길을 가진 마을이 있다. 바로 북정마을이다. 김광섭 시인이 8년 정도 살았고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된 북정마을은 지금도 70년대 산동네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시간 여행하기에 좋다. 한양도성 중 지형이 가장 험난한 북악산 산자락을 타고 가파른 비탈길에 웅기종기 들어앉은 집들. 그 지붕 낮은 집들 사이로 폭 1m도 안 되는 좁은 골목길이 사방으로 꼬불꼬불 퍼져 나간다.

많은 사람이 이 골목길을 걷기 위해 온다. 손꼽히는 절경이 휘감는 길도 많은데 사람들은 왜 굳이 좁고 조금은 누추한 이 골목을 찾는 걸까?

질곡의 여정을 견뎌 낸 집들과 그 집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수많은 골목길, 그곳에 일렁이는 햇살을 마주하며 골목 골목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가벼워지고 위안과 심을 얻는다. 걷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된다. 걷기만 해도 수행을 선물하는 곳, 그것이 '오래된 것'의 진정한 힘일 것이다.

성북동에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금왕돈까스. 지금이 점심 피크 타임인데 대박 집 테이블을 혼자 차지해도 괜찮을까. 걸음이 빨라진다.

4. 성북동에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금왕돈까스. 성북동 명물 중 하나이다

5. 성북동 한 골목에 위치한 최순우 옛집. 2002년 시민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5

지혜모아&광성북카페 주관
2022 독서감상페스티벌
어린이부 최우수상

『성품 좋은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를 읽고 부유와 풍요로움보다 더 값진 것

글 임주아(초등 6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위대하고 멋진 인물들이 있다.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 키가 크고 날씬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하는 일이 다 성공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등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 키도 작고 날씬하지도 못한 사람, 돈도 적고 하는 일이 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많다. 조건에 맞춰지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맞춰놓은 틀에 끼워지려고 노력하기 급급하다. 이 사람들이 그 틀에 맞춰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처럼 세상에 맞춰 가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품이 좋지 않다면 금방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질 때 구할 수 있는 것은 부유와 풍요로움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유와 풍요로움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이겨 낼 수 있다. 최근에 ‘나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나의 헛된 허망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 길을 왜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22년 6월 1일이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혼자 뮤지컬 오디션 영상을 찍고 메일을 보내 1차 합격, 2차 합격, 뮤지컬 연습에 이어

공연을 하기까지 많은 눈물이 있었다. 친구들과도 놀지 못하고 쉬는 시간 없이 숙제하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만 맴돌았다. 하지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이겨 내어 공연까지 마치고 뒤돌아보니, 이 책에서 나온 ‘열정’ 편을 자랑스럽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열정을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거예요.’라고 정의 내렸다. 나는 뮤지컬을 하며 ‘이게 맞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나는 열정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예전의 나는 그저 힘들면 포기하고 짜증내는 평범한 13세 여자아이였지만 이제는 열정을 다해 뮤지컬을 공연한 임주아가 되었다. 2015년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우리 가족은 상심했고, 슬퍼했고, 조용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우리 가정의 이 과정이 언젠가는 우리 가정의 갑옷이 되어 줄 것이라고. 언젠가는 우리 가정이 이 아픔으로 인해 더 성장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 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빠는 천국에서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어느 평범한 13세 여자아이였던 나는 용기가 가득한 임주아가 되었다. 5학년 때에는 내가 너무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빠져 살았다. 어느 것을 하던 글씨는 최대한 작게, 빼곡하게 적고 시험도 다 맞아야 한다는 나 혼자만의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이것을 못 해도,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의 단점과 장점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어느 평범한 13세 여자아이였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시험을 못 봐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임주아가 되어 있었다.

6학년 때에는 친구 관계로 많이 힘들었다. 나는 무리 안에 완전히 속하지도, 그렇다고 안 속하지도 않았다. 그냥 어중간한 위치에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해서 많이 속상하고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성향도 많이 맞지 않아서 갈등도 많았다. 그렇지만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관계를 이어 가다 보니, 내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놀고 안 놀고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 친구 관계가 서툰 어느 평범한 13세 여자아이였던 나는 여러 친구와 두루두루 노는 사랑의 임주아가 되어 있었다. 이 책에 나온 인물들이 겪은 고난의 시기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겪었던 힘들고 어려움이 나의 갑옷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겪은 어려움과 지쳤던 것들이 쌓아지고 쌓아져 어느 순간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장점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결코 기적 같지 않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고, 때로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배우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책이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더 감사해지고 더 은혜워지는 책이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부유와 풍요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겨 낼 수 있다. 내가 어려웠던 일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겨낸 것처럼 말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몸매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정도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맡겨진 일에 성의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나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법도 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싶은 임주아다. 나는 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싶은 임주아다.

지혜모아&광성북카페 주관 2022 독서감상페스티벌 일반부 최우수상

『한 시간 기도』를 읽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

글 조인숙 집사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며 매일의 말씀이다 소중했지만 20일째 진정주 약사님의 말씀은 기도회를 마치는 시점에 저에게 딱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21일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독서감상페스티벌 포스터에서 『한 시간 기도』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정말 감탄하고 감사했습니다.

책의 첫 장에서 한 시간 기도는 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한 시간 기도하자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부담인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실제인가를 말해 주는 지표라고 하는 부분부터 저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꼭 내 머릿속을 들

여다보고 글을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꼭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넘어진다.’ 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속 은밀한 두려움을 딱 꼬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이 편안할수록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 이러다가 갑자기 이 편안함이 깨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하면 삶 자체가 쉬워진다는 말씀이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성취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을 갔지요. 졸업과 동시에 개척하는 형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당시 대학부 목사님의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자, 너무나 소중한 20대의 1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씀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

니다. 거기에 순종하여 교회 도서관과 공부방 만드는 일에 헌신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작게 여기고 하찮게 보는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 다.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에서 잡혀 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한 주간에 세 번이나 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보잘 것 없는, 심지어 먼 나라에 잡혀 와서 종노릇 하는 어린 소녀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도 우리에게 보통 수준의 영향력밖에 없고,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이지만, 기도할 때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이나 형편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시간 기도는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한 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고백하는 일이라서 스트레스가 아니며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온전하게 믿고 기대하고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책에서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뒤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면서 일주일 만에 교회에 다시 가셨고 일생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문제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울면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무 응답도 없는데 끝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는 게 정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진짜 중요한 방향을 분명히 하자는 것,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도 하며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며 살게 되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의 예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 되게 해 달라고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도 저는 한 대학에서 잘못된 인권선언문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서명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동성애와 낙태로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려는 풍조가 강하게 퍼져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더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 힘을 더해 주소서!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짚막하게 전하는 교회 소식

글 김용기 기자

최초 '농인 성경 골든벨' 전국 대회 열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인 성경 골든벨'이 열려 교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장애인 사역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광성홀과 올리브향기에서 '2022년 전국 농인 성경 골든벨'을 개최했다. 수어로 진행되는 농인 골든벨은 농인들의 성경 지식을 높이고 다음 세대의 믿음 성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100명의 농인이 참가해 성경 암송 경연을 펼쳤다.



제1회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정선아(남서울은혜교회), 김예은(주안수어교회), 이현민(부천농아교회) 씨가 각각 1~3등을 차지해 부상으로 50~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농인 골든벨은 농인 사역자로 일했던 이대설 전도사가 15년 동안 자신의 생활비를 절약해 모은 3천만 원을 거룩한빛광성교회 농인부에 후원해 이뤄졌다. 이대설 전도사는 “성경 구절 하나로 농인들이 변화되고 평생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여겨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로·권사·안수집사, 향존직 61명 임직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장로·권사·안수집사 등 향존직에 대한 임직식과 임직 감사예배를 올렸다.

2022년 11월 6일 주일 오후 4시 광성홀에서 열린 임직식에서는 장로 4명, 권사 36명, 집사 18명, 집사 취임 3명 등 모두 61명의 향존직에 대한 안수와 감사예배가 진행됐다. 장로 등 임직자들은 지난해 선거로 피택되어 섬김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이날 임직했다.

장로에 장립된 최재명, 이홍식, 김용섭, 정재원 장로는 앞으로 5년 동안 교회 당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꿈터 '책과 놀자' 전시회 개최



새꿈터는 학생들이 책 읽기 수업을 하며 기획하고 제작한 독후감 창작물을 모아 '책과 놀자' 전시회를 가졌다. 2022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어울림누리 제1미술관에서 열린 '책과 놀자' 전시회에는 올해 초부터 새터민 아이들이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으며 받은 감성을 표현한 다양한 독후감 창작물이 전시됐다.

새꿈터는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설립한 해피월드복지재단 소속의 지역 아동 센터로 탈북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전도회연합회 주관 '사랑의 바자회' 성황



거룩한빛광성교회 여전도회연합회는 장학금 마련과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2022년 10월 15일 하루 동안 열린 사랑의 바자회에는 김밥·국수 등 먹거리를 비롯해 신발·가방·문구류 등 다양한 생활 필수품이 판매돼 성황을 이뤘다.

가을철 은혜의 폭포수, 추계부흥성회 성료



깊어 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추계부흥성회가 열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가 됐다. 2022년 10월 5~7일까지 열린 추계부흥성회에는 김운용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대들,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라'라는 주제로 모두 다섯 번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회복을 선포했다.

광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3회 정기 연주회 가져



광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자 우나이 우레초)는 2022년 10월 8일 오후 5시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올해로 제23회를 맞은 정기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5번 운명교향곡,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등이 연주돼 아름다운 선율로 가을의 화려함을 더 했다.

심자가의 길

크로스로드 선교회

ON 크로스로드 TV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는 한국 교회를 위해 성길 인재를 훈련하고 세워갈 목적으로 설립하신 단체로 설립 이래 한미준 세라민 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진행함으로 목회개척을 꿈꾸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정성진 목사



*다윗의 물맷돌

한국교회미래를
All라인 준비하는
SCHOOL

Crossroad Church-planting Center by 크로스로드

F 정기포럼

미래목회환경의 분석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질적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문가적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포럼은 비정기적 모임으로서 중요 의제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A 아카데미

크로스로드의 유튜브 채널(크로스로드TV)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서신학/ 실천신학/ 인문학/ 실용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미래지향적 목회방향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크로스로드 세미나리는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으로 주로 설교, 예배, 선교 등의 목회적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전문가를 위한 오프라인

S 세미나리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로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멘토링을 받고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사랑방 에듀살롱

지역모임/ 오프라인

E

C 컨퍼런스

목회개척컨퍼런스와 함께 소규모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강화방식의 서당프로그램(신학서당/ 설교서당/ 목회서당)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각각의 지역적/ 개인적 필요에 따른(선교사포함) 훈련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준비됩니다.

서당 프로그램/ 오프라인

DMZ
해마루촌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기타 사역 *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비밀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WWW.CROSSROAD.OR.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장항동, 메탈릭타워) 9층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3-753130 예금주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문의전화 T.031-901-0316

CMS 후원신청서

후원단체 정보 *후원기관명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사업자번호 : 364-82-00287
*대표자명 : 정성진 대표이사 *수납요금종류 : 후원금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회원 정보

*성명(법인명) _____ *핸드폰번호 _____

*주소 _____

0만원선교회 회원

CMS 자동이체 (아래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예금주명 _____ *예금주생년월일 _____

*예금주연락처 _____ *신청인과의관계 _____

*금융기관명 _____ *출금계좌번호 _____

*납부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후원내용 ☐ 월 1만원 ☐ 기타(운영위원) 월 _____ 만원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0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금융결제원, 국세청, (주)케이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및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

은행 및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연락처 정보(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후원내용

1. 정기 후원금 월 _____ 만원
2. 일시 후원금 _____ 만원

*기부금 연말정산 가능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섬기는 교회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 대 비전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7:30	광 성 홀	교 회 교	영 아 부	1부 오전 9:00	백 합 (B1)
	2 부 예 배	오전 9:00	광 성 홀		유 아 부	(영아부 1부 없음) 2부 오전 11:00	장 미 (B1)
	3부예배(수어통역)	오전 11:00	광 성 홀		유 치 부	3부 오후 12:30	진 달 래 (B1)
	4 부 예 배	오후 12:30	광 성 홀		초 등 1 부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무 궁 화 (B2)
	5 부 예 배	오후 2:30	광 성 홀		초 등 2 부		난 초 (B2)
	(청 년 부)				초 등 3 부		비전센터2동(2F)
농 인 부 예 배	오후 1:00	비전센터2동(2F)	초 등 4 부		드림교육 3-2동		
저 녁 예 배	오후 8:00	온라인 가정예배	초 등 5 부		드림교육 3-1동		
수 요	수 요 예 배	오전 10:30	광 성 홀		초 등 6 부	드림교육 1동	
	성 경 대 학	성경대학 안내지 참고			어린이영어1부	오전 9:00	비전센터2동 (2F)
빛가득금요기도회	오후 9:00	광 성 홀	어린이영어2부		오전 11:00	민 들 래 (B1)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	광 성 홀	사 랑 어 린 이		오전 11:00	비 전 홀 (B1)	
저녁기도회(월~토)	오후 9:00	두손모아(B1)	사 랑 청 소 년		오전 11:00	비 전 홀 (B1)	
외국인	베 트 남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 랑 청 년 1부	오전 9:00	비 전 홀 (B1)
	태 국	오후 2:30	비전센터 3동	사 랑 청 년 2부	오전 9:00	비전센터 3동	
	영 어 예 배	오후 1:00	드림교육 1동	중 등 부	오전 9:00	지저스아트홀	
주 일 영 상 예 배	2/3/4부 [4층그레이트홀]			고 등 부	오전 9:00	드림교육 2동	

교육안내

새 가 족 교 육	주 일 오후 12:15	비 전 홀	생 활 신 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알 파 코 스	화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성 경 대 학	수요일 오전 11:30	
일대일 제자양육	매 일	해당교육실	수 요 목 양 훈 련	수요일 오후 7:30	해당교육실
노 아 스 쿨	목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주 일 오후 2:00	해당교육실

봉사기관안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21-0691	작은교회전도지원센터	929-3393	사회복지법인해피월드	915-8817
광 성 평 생 교 육 원	929-3352	천 사 가 게	911-2923	파 주 노 인 복 지 관	943-0730
북 카 페	929-3311	쿰 치 유 센 터	929-3343	문 산 종 합 사 회 복 지 관	934-2000
지 헤 모 아	929-3354	두 드 립	929-3330	덕 양 노 인 종 합 복 지 관	969-7781
만 나 와 메 추 라 기	929-3340	한 나 래 유 치 원	917-0551	원 당 종 합 사 회 복 지 관	966-4007
상 담 실	929-3333	광 성 드 립 학 교	929-9500	고 양 시 다 문 화 가 족 지 원 센터	938-9801
아 름 머 리 방	929-3344	해 피 뱅 크	924-8815	새 꿈 터 지 역 아 동 센터	911-0611
울 리 브 향 기	929-3388	해 피 천 사	918-7004	광 성 심 리 상 담 센터	929-3370

찾아오시는길



교통편 안내

- 자가용
- 자유로 이산포 IC 진입 → 고양종합운동장 (직진)
→ 이마트 사거리(좌회전 후 금촌방향 1Km 직진)
→ 교회
- 대중교통 (대화역 4번출구 버스승차, 애플 광성교회 하차)
- 일반버스: 56, 80, 567, 600, 773, 900
좌석버스: 1500, 2000, 3000, 5000

곽승현 위임목사 CBS 설교방송 매주 (월) 오후 7:00 KT (238), LGU+ (270), SK Btv (300), Skylife (182)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 청소년 자살예방상담전화 : 1388
아동·청소년·성인·부부 전문심리상담 광성심리상담센터 : 929-3370(예약필수, 유료상담)

교회를 섬기는 이들

●사역총괄	문상원목 사
●교구관리	김은찬목 사
1교구 (예배)	차광욱목 사
2교구 (제2교육)	이석희목 사
3교구 (교구지역)	최종운목 사
4교구 (세계선교)	나형빈목 사
5교구 (사회선교)	문상원목 사
6교구 (선임기획행정)	김만석목 사
7교구 (차량)	박석순목 사
8교구 (전도)	김민석목 사
9교구 (국내선교중앙교)	문은배목 사
10교구 (통일선교봉사경조)	김종인목 사
11교구 (제3교육)	김현준목 사
12교구 (가정사회복사역)	이일현목 사
새가족교구 (제2선교)	송화준목 사
유 학	
●행 정	
행 정 사	이재광
목 회 비 서	방성빈
미 디 어	윤화평
사 무 장	전정희
영	연광홍
	장
	박유하
	이사무엘
	이홍섭
	최민선
	한수영
	박명옥
	손영철
	이현우
	이흥구
	차영민
	송석원
음 재	
행 시	향 정
설 관 리	정 리
관 리	원
●교 육	
제 1 교 육 (교 회 학 교)	한요한목 사
영 아 부	홍진희
유 아 부	김수진
유 치 부	
초 등 1 부	윤화평
초 등 2 부	이재광
초 등 3 부	김하람
초 등 4 부	배요섭
초 등 5 부	김시란
초 등 6 부	박성훈
어 린 이 영 어	김은하
중 등 부	엄유현
	김현성
	홍요한
	박주은
	왕하늘
	원하은
제 2 교 육	차광욱목 사
청 년 부	최재욱목 사
	차선우목 사
	박정훈목 사
	백일주
	차광욱목 사
	김민혁목 사
	김종인목 사
노 아 스 쿨	한요한목 사
장 애 인 사 역 (사 랑 부)	박정훈목 사
사 랑 어 린 이	박정훈목 사
사 랑 청 소 년	김태민
사 랑 청 년 1부	박순심
사 랑 청 년 2부	김진성
농 인 부	이대설
●선교 및 예배	
광 성 영 어	윤성로
태 국 남	황경희
베 트 남	종태원
일 민	노옥실
상 담	이소영
전 도	김용남
제 1 찬 양	박성택
	이재성



겨자씨.

2023 WINTER VOL.45

보내실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5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곽승현
발행일: 2023년 1월 1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이하을, 최아인
청년부 취재기자: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사진: 연광홍
편집: 심혜옥, 김형수
책임편집: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5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곽승현
발행일: 2023년 1월 1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이하을, 최아인
청년부 취재기자: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사진: 연광홍
편집: 심혜옥, 김형수
책임편집: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위원회 9개 팀을 소개합니다.

홍보미디어위원회는 영상과 음향 제작으로 예배를 돕고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대내외에 우리 교회 소식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팀

예배에 필요한 모든 영상을
제작하고 그 외, 교회의 각종
영상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향팀

소리의 미술사, 예배의 모든
아름다운 음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팀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교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취재팀

예배와 교회 행사, 모임, 봉사
활동 등의 모든 영상 자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S뉴스팀

교회 소식을 기획, 녹음하여
KS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겨자씨팀

선교 간행물이며 동시에 문학
및 종합 계간지인 겨자씨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교회신문팀

교회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교회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외홍보팀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를
알리며 언론 관련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기획팀

미디어콘텐츠개발팀과
영상제작팀을 통합, 대내외적
교회 기획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합니다.



운정역 창고 스튜디오

www.1takestdo.com

문의 전화 : 010-5873-4589



2023년 1월 1일 오픈

영화, 드라마, 광고, 창고 형 세트장



A동

40평 파출소

파출소 / 지구대(완벽 재현)



B동

60평 자유 연출 공간

이동식 벽 활용
총 5가지 콘셉트 방 연출 가능



분장/대기실



원테이크 스튜디오

OPEN EVENT

시간당

30만원->18만원

2022.12부터
~ 2023.2월 말 까지

기본 3시간 데크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 특별 추가 할인



오시는 길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73-2
운정역 900m, 야당역 1.5km



사업자 대표 : 이로운 | 사업자 등록번호 : 896-19-01625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3년 3월경 준공예정!

(2021년 11월 착공)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3월경,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일산팜」

일산팜은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상표권 등록 완료 | 상표등록: 제 40-1815891 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2023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건축개요

- 1) 건축면적 : 1,464평
- 2) 대지면적 : 6차선 확장 및 진입도로 포함 3,480평
- 3) 용 도 : 판매시설
- 4) 대지위치 : 장항동 565-6외 4필지



■ 본 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동산지점 031)906-3234 ■ 산들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8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북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 풍산점 031)906-8666
 ■ 로컬푸드 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